50+마을기록지원단과 함께한
인터뷰기록집 Vol.2

# 반보의 지혜 마을을 잇다

半步

살구여성회 활동가 인터뷰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CONTENTS


◆ 추천사 • 4

◆ 연혁 • 12

◆ 인터뷰기록자료

**김주숙** 금천구에 뿌리내린 여성복지의 첫걸음 • 16

**유인숙** 살구여성회 30년을 돌아보며 • 30

**우영화**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38

**송금옥** 우물 밖 새로운 세상을 만나 • 46

**김무메** 서로 도우며 사는 행복이란 • 54

**한진** 지역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역주민을 믿어야 • 60

**최현남** 우리도 학교가 있다. • 66

**김옥자** 살구여성회에서 보낸 인생의 호시절 • 74

**한복희** 이웃나눔회와 함께한 따뜻한 봉사의 추억 • 80

**노금숙** 영어선생님으로 시작된 뜻밖의 봉사 여정 • 86

**노탐주** 소중한 재능의 나눔으로 완성한 선율 • 92

**서은주**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활동가 • 98

**박동완** 얻은 게 더 많았던 13년간의 재능기부 • 104

**박정숙** 다양한 사업 힘차게 추진한 리더십의 여정 • 110

**나정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가로 성장 • 116

**류희춘** 놀이터 사업으로 새로운 진로 개척 • 122

**이윤경**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복지를 꿈꾸며 • 128

**정순금 · 성연모 · 나칠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봉사 활동을 즐기는 세 명의 이웃사촌 • 134

**박은실** 한글과 함께 배운 용기와 연대 • 140

**주혜영** 봉사활동으로 깨우친 인생의 가치 • 148

**박양희** 밥 짓는 냄새와 함께한 열정의 봉사 • 154

**박성숙**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 162

**김지순** 봉사하는 시간, 잊었던 웃음을 되찾다 • 168

**박명숙** 지식을 전하고 사랑으로 되돌려 받다 • 174

◆ 참여후기 • 180

# 추천사

##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어 가는 여성들

前서울시마을공동체담당관 과장
서진아

2012년 보궐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정책을 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울시 전역의 공동체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 곳곳에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공동체 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시민사회가 열심히 일구어 온 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이 제 몫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그 조사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마을공동체1기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그 조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살구여성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살구여성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이쁘게 지었을까? 살구껍질의 그 보드라운 감촉과 씨앗의 단단함. 과육의 달콤함이 여성회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우러져 이 단체가 하는 활동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강성 이미지가 묻어있지 않은 이름이 주는 신선함이 아주 컸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니,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살구여성회와 여성회 출신 활동가들의 손길과 움직임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지 여성회라고 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노인, 청소년, 문해, 문화 등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애써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한 일을 하기 전에는 노원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마들주민회'라는 곳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곳도 '살구여성회'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여성회가 아니지 '살구여성회'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였습니다. 대부분의 활동가 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마들주민회'의 대표적인 활동인 '마들여성학교'는 문해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40대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신나고 즐거운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성장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살구여성회'를 거쳐간 많은 여성활동가들에게도 '살구여성회'가 그런 울

##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어 가는 여성들

타리였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김주숙 선생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구여성회'가 확장하는 것보다 살구여성회를 거쳐간 활동가들이 리더쉽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엄마가 자녀을 키워 세상으로 내어보내듯 '살구여성회'의 지향은 지역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의 경험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주요 공동체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서울시나 중앙의 주요한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시민단체들은 여성들의 활동력에 기대어 움직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마을공동체활동을 움직이는 주축 또한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중심이 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직책에는 남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런 부당함도 서서히 바뀌지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라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을에 있고 마을을 일구는 사람들은 여성들임을 마을공동체 활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출간이 참 고마운 게 단지 '살구여성회'의 역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금천구라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탓인지, 근대 이후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 중앙집권적 정치행태의 역사가 길어서인지 어쨌든 작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천구만 해도 인구 23만이 넘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구로구에서 분구가 되고 경기도와 인접한 구로써 자치구의 독립적이고도 주민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분석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금천구의 지역사회복지정책, 양성평등정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금천구의 시민사회 성장의 역사와 그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왔는지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 책을 펴내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책들이 발간되기를 희망합니다.

# 추천사

## 반보 앞선 지혜에 귀를 기울이다

前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안지성

살구여성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0년쯤 전이다. 금천구 지역사회 이해에 관련한 강의를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살구여성회를 만든 김주숙선생님이었다.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금천구 지역사회에 대한 강의는 꽤나 정밀하고 매력적이었다. 더구나 민간에서 지역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까지 느껴졌다.
그날 이후 곳곳에서 살구여성회를 만났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에서, 금천어린이큰잔치를 작당하는 모의의 현장에서, 성인문해교육 결과물 전시회에서, 금천구를 대표하는 주민들의 축제에서 살구여성회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살구여성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살구여성회 30주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석주 시인의 시다. 한 단체가 30년을 넘어 지속됐다는 것, 그게 저절로 그리되었을 리가 없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어리었을까? 얼마나 많은 만남과 이별과 상처가 새기어졌을까? 몇 번의 이사와 동동거림과 갈등이 그 안에 담기었을까?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에서 마을공동체기록을 수집하고자 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첫 번째 공동체로 살구여성회를 떠올렸다. 살구여성회가 오래된 공동체인 까닭도 있었지만, 살구여성회가 무려 30년 전에 하고자 했던 일이 현재 서울시와 금천구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하고자 하

는 일과 정확히 일치했던 까닭이 더 컸다.

> 다만 살구여성회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자는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 시절이 요구하는 일 그리고 절박한 지역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하는 식으로 일관되게 활동해왔기 때문에 살구여성회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김주숙,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13p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목적이 살구여성회가 이미 30년 전에 세운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목적과 똑같았다. 바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살짝 전율이 일었다. 우리 구 마을공동체기록은 무조건 살구여성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저절로 생겨났다. 무려 30년 전 시대를 앞서, 시대와 함께 했던 혜안의 마을공동체,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아직도 삭막한 대도시에서 맨손으로 마을공동체를 일구는 후배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다.

기록은 살구여성회를 함께 일구어 온 사람들의 인터뷰로 엮어져 있다. 전체적인 역사의 수집과 서술은 살구여성회 자체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고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구여성회를 알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로 소임을 다했으면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공동체기록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싶었다. 마을공동체니 주민자치니 시민사회단체니 하는 사람들이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동시대를 살





고 있는 엇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기도 했고, 시대와 사회의 자료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머물면서 그 사람을 통해 시대와 사회를 읽는 그런 기록을 하고 싶기도 했다.

살구여성회가 지금의 마을공동체 보다 몇 걸음이나 앞서 걸어간 걸까? 벌써 몇십 걸음 앞서 저만치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성의 사회 교육이 전무하던 시절, 살구주부대학이며 여성교육의 장을 열어 평범한 아줌마들을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길러낸 일부터,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뻗어나간 아동 돌봄, 청소년 교육, 학교급식비 지원 및 장학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대응,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어르신 밥집, 지역아동센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은 살구여성회가 몇십 걸음 앞서 잰걸음으로 온몸으로 세상과 소통해서 빚어낸 열매들이다.

부디 이 기록이 살구여성회 언니들의 그 앞선 걸음을 이제 막 공동체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길을 나서는 후배들을 위해 반걸음 앞으로 가져다 놓는 시도이기를, 반보 앞선 그녀들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허락해주신 살구여성회와 살구여성회 인터뷰이 25명에게 깊은 감사를 올린다. 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금천구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샘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끔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변화를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을 믿으며 또 바란다.

# 살구여성회 연대별 주요활동

자체사업 지원사업 부대사업

| 년도 | 대상 / 내용 / 단체현황 | 여성 | | | | 아동 · 청소년 | | | | |
|---|---|---|---|---|---|---|---|---|---|---|
| | | 기초교육 문해교육 | 주부대학 | 여성 교양교육 | | 아동교육 · 아동보호 | | | 아동지원 | 청소년 활동 |
| 1991 | 살구여성회 사회단체 창립 (9월 19일) | 살구여성교실 | | | 학부모강좌 | 국민학생 공부방 | | | | |
| 1992 | 사무실 이전 (10월 3일) | | 살구주부대학 | | | | | | | |
| 1993 | 살구여성회 재창립대회 (7월 13일) | | | 여성학 강좌 | 환경교육 | 살구어린이교실 | 방과후교실 | | | |
| 1994 | | | | | | | | | | |
| 1995 | | | | | | | | | | 청소년 환경교육 |
| 1996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월 12일) | | 지역여성교육 | | | | | | | 청소년 지원봉사 학교 |
| 1997 | 사무실 이전 (8월 18일) 사단법인 인가 | | | | 환경교육 | | | 청소년 성교육 | | |
| 1998 | | | | 사회교양 교육 | 학부모 강좌 | | | | | |
| 1999 | | | | 여성정치 교육 | | | 생태 기행 | 주간아동보호 |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 |
| 2000 | | | | 여성정보화 교육 | | | | | | |
| 2001 | | | | 주부인터넷 교실 | | | | | | 청소년 자원봉사단 햇살 |
| 2002 | 서울시 '자랑스러운시민상' 수상(12월 26일) | | | | | | | | | |
| 2003 | 노인그룹홈 '조옥례의 집' 개관(12월 19일) | | | | | | | | | |
| 2004 | | | | 여성기초 성교육 | 여성학 강좌 | | | | | |
| 2005 | | | | 양성평등 강좌 | 양성평등 강사과정 | | 문화체험학교 | 우리마을 탐방 | | 청소년 진로탐색 |
| 2006 | | 살구평생학교 | 살구 실버대학 | 생태환경체험지도사 양성과정 | | | | | 금천 이웃 나눔회 | |
| 2007 | 살구여성교실 이전(2월) 서울시 여성상 대상 수상 (7월) | 살구성인문해학교 | | | | | | 중고생야간교실 (GSF School) | | |
| 2008 | 독산3동 살구복지회관 개관/ 따뜻한 밥집 이전 (3월22일) | | 지역여성 교육 | 양성평등강좌 | 인문학강좌 | | | | | |
| 2009 | 법인 사무실 이전(3월) 살구방문요양센터 개시(6월) | | | | | | | 교복비 지원 | | |
| 2010 | 사회적기업'찾아가는 어른공부방' 사업 개시(10월 1일) | | 찾아가는 어른 공부방 | | | 살구희망 방과후교실 | 따맘 봉사단 | 아동 서포터즈 | 지역 아동센터 지원 | |
| 2011 | '살구지역아동센터' 개관 (5월1일) | | | | 학습 동아리 | 살구지역 아동센터 | | 놀이터 지킴이 | | |
| 계속 | | ↓ | ↓ | ↓ | | ↓ | | | ↓ | |

| 년도 | 노인 | | | 지역사회 | | | | | | |
|---|---|---|---|---|---|---|---|---|---|---|
| | 노인돕기 재가복지 | 무료 급식 | 노인 보호 | 지역사회 조직참여 | | 조사 및 정책개발 | 회원 소모임 | | 자원봉사 | 기타 |
| 1991 | | | | 저공해 비누 만들기 | | | | | | |
| 1992 | 봉우이웃돕기 | | | | | 1차 지역사회 여성욕구조사 | | | 자원봉사 (봉우이웃 돕기, 바자회) | |
| 1993 | | | | | 환경교육 | | 독서모임 | 등산모임 | | |
| 1994 | | | | | | | | | 살구 합창단 | |
| 1995 | | | | | 환경 보존사업 | 2차 지역사회 여성욕구조사 | | 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 | | |
| 1996 | | | | | 환경감시단 활동사업 | | | | 아버지 모임 | |
| 1997 | 독거노인 결연사업 | 무료경로급식 따뜻한 밥집 | | | 동단위 환경 실천운동 | | | | | 지역자원봉사활동 |
| 1998 | | | 재가복지서비스 | | 시정참여 사업 (환경분야) | 노인복지 심포지움 | | | | |
| 1999 | | | | 환경실천가정 시범사업 | | | | 살구 녹색가게 | 무료급식 봉사 | |
| 2000 | | | | | | | | | | |
| 2001 | | | | | | | | | | |
| 2002 | | | | | | | | | | |
| 2003 | 노인그룹홈 조옥례의집 | | | | | | | 금천구 정치기단 | | |
| 2004 | | | | | | | | | | 살구자원봉사대 |
| 2005 | | | | 생태환경지킴이단 | | 성평등 의식조사 | 편의시설 조사 | | | |
| 2006 | | | |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 금천사업 복지연대 사업 | | | | | |
| 2007 | 빨래방지원사업 | | | 여성활동 업그레이드 사업 | 지역 사회 네트 워크 연대 사업 / 여성 가장 자조 모임 | 여성가장 사회복지 지원매핑 | | | | 자원봉사캠프이동 |
| 2008 | | | 소외된어른신나들이 | | | 공중 화장실 실태조사 | 경로무료 급식조사 | | | |
| 2009 | 재가복지 및 빨래방 서비스 | | | | 재가 복지 연대 사업조사 | 女幸 안전지도 만들기 | 살구 낭독회 | | | |
| 2010 | | | | | | 어린이공원 · 생활 안전조사회워 | 평생학습 동아리 | | | |
| 2011 | | | | | | | | | | |
| 계속 | ↓ | ↓ | ↓ | | ↓ | | | | ↓ | ↓ |

# 살구여성회 업적 도표

○ 지원사업 ● 자체사업

| 구분 | 교육사업 | 구분 | 보호사업 |
|---|---|---|---|
| 여성교육부문 | ● 살구여성교실(1991~2006)<br>● 살구평생학교(2007~현재)<br>● 살구주부대학(1992~1998)<br>○ 살구성인문해학교(2006~현재) | 노인재가복지부문 | ● 무료경로급식사업(1997~현재)<br>● '따뜻한 밥집' 상조회(2002~2006)<br>● 재가복지사업(1992~현재 : 불우이웃돕기)<br>○ 빈곤노인 보호프로그램(1999)<br>○ 빨래방 지원사업(2007~2008)<br>○ 주거환경 개선사업(2010~현재)<br>● 노인그룹홈사업(2003~2006)<br>● 노인건강돌보기사업(1998~2010) |
| | ● 학부모(1991~1992, 1998~2001)<br>● 지역여성교육(1992~1999, 2000~2001,2008)<br>● 환경교육(1993~1994, 1997, 1998)<br>○ 사회교양교육(1998)<br>○ 여성정치교육(1999)<br>○ 여성정보화교육(2000)<br>○ 여성자아실현교육(2000)<br>○ 여성학강좌(2004~2006)<br>○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2004)<br>○ 여성기초성교육(2004)<br>○ 양성평등교육강사 양성과정(2005)<br>○ 살구실버대학(2006)<br>○ 양성평등강좌(2008~2010)<br>○ 생태환경체험지도사 양성과정(2006)<br>○ 인문학강좌(2009~2010)<br>○ 평생학습 동아리(2010) | 노인문화체험부문 | ○ 소외계층 어르신문화체험(2006~현재) |
| 아동교육부문 | ● 제1기 방과후교실(1991~1992 : 국민학생공부방)<br>● 살구어린이교실(1991~2005)<br>● 제2기 방과후교실(1998~2001)<br>● 제3기 방과후교실(2010~2011 : 살구희망방과후교실)<br>● 중고생 · 야간교실(2007~2008) | 아동·여성보호부문 |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1999~2010)<br>● 주간아동보호사업(1999, 2003~2004)<br>● 장학사업(2004~2006)<br>○ 여성가장 자조모임(2007~2008)<br>○ 여성가장 위기지원사업(2007)<br>○ 교복비 지원(2009)<br>○ 금천구 아동안전 실태조사 및 폭력방지 서포터즈단(2010)<br>○ 놀이터지킴이활동(2011) |
| | ○ 청소년성교육(1997)<br>● 생태기행(1999~2001)<br>● 어린이문화교실(2000:박물관학교)<br>● 살구어린이문화체험학교(2005)<br>○ 청소년 진로탐색(2005)<br>○ 우리마을탐방(2005) | | |
| 부대사업 | ○ 찾아가는어른공부방(2010~현재)<br>○ 살구지역아동센터(2011~현재) | 부대사업 | ○ 살구방문요양센터(2009~현재)<br>● 금천이웃나눔회(1998~현재) |

| 구분 | 조직사업 | 구분 | 조사 · 연구 · 출판사업 |
|---|---|---|---|
| 여성교육부문 | ● 저공해비누만들기(1991~1998)<br>● 환경활동(19993~1998)<br>○ 제1차 환경보전사업(1995)<br>○ 금천구환경감시단 활동사업(1996)<br>○ 동단위 환경실천운동(1997)<br>○ 제2차 환경보전사업1(1998)<br>○ 환경실천가정 시범사업(1999)<br>○ 환경캠페인(2006)<br>○ 생태환경지킴이단(2006) | 조사부문 | ● 지역사회 욕구조사(1992, 1995)<br>○ 지역여성 욕구조사(2004)<br>○ 성평등 의식조사(2005)<br>○ 편의시설 실태조사(2005)<br>○ 문화복지지도 만들기(2005)<br>● '따뜻한 밥집' 수혜자조사(2007)<br>○ 금천구 여성 욕구조사(2007)<br>○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 자원매핑(2007)<br>○ 공중화장실 조사(2008)<br>○ 여행 안전지도 만들기(2009)<br>○ 어린이공원 실태조사(2010)<br>○ 어린이생활 실태조사(2010) |
| 사회개혁부문 | ○ 평등가정 · 행복가정 착기대회(2005)<br>● 매니페스토 운동(2007)<br>○ 금천사랑 줌마 지도력 개발(2007) | 정책개발부문 | ○ 노인복지 심포지움(1998)<br>○ 경로무료급식 조사연구(2008) |
| 연대사업부문 | ● 금천한우물생협 연대사업(1993~현재)<br>●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2006)<br>○ 여성분과 워크샵(2007~현재)<br>● 금천구지역사회네트워크 대사업(2007~2008)<br>● 재가복지 연대사업(2009~현재)<br>● 금천구평생교육네트워크(2011~현재) | 출판부문 | ○ 교재 개발사업(1995)<br>● 정기간행(1991~현재)<br>● 교재, 단행본 발간(1991~수시)<br>● 보고서·자료집 발간(1996~수시)<br>● 단체 홍보물 발간 · 제작(1991~수시)<br>● 정부,기관의 프로젝트 |
| 자원봉사 | ● 지역 자원봉사활동(1992~2005)<br>●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1997~현재)<br>● 청소년자원봉사학교(1996~2000)<br>○ 청소년자원봉사단 '햇살'(2001)<br>○ 자원봉사캠프(2006~현재)<br>○ 따맘봉사단(2010~2011)<br>● 불우이웃돕기바자회(1992~1996) | 구분 | 조직사업 |
| 소모임활동부문 | ● 주민도서실(1991~2006)<br>● 독서모임(1993~2001)<br>● 등산모임(1993~1998)<br>● 살구합창단(1994)<br>● 아버지모임(1996)<br>● 함박웃음(1997~1999)<br>○ 여성소모임 활동사업(1998)<br>● 살구녹색가게(1999~2000)<br>● 살구낭독회(2000) | 살구여성회 | ● 민간단체 운영사업(1991~현재)<br>● 아유회(1992~수시)<br>● 직원교육 · 연수교육(1992~수시)<br>● 후원의날(1995~수시)<br>● 실습생 지도(2007~수시) |

김주숙,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제작소, 2012 : 살구여성회 20년 활동 요약(1991.9 ~ 2011.5) 내용 일부입니다.

# 금천구에 뿌리내린 여성복지의 첫걸음.

**김주숙**



하던 것을 그냥 하는 건 '활발'한 게 아니에요.
시대 조류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아, 나도 여기 참여해야겠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활발한 거지요.
단체나 개인이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면 퇴보라고 봐야죠.

## 농촌사회연구자가 도시사회를 연구하다

### 살구여성회의 소소한 얘기가 듣고 싶어 왔어요.

살구여성회가 도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나는 원래 도시 활동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1959년에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사회가 농촌사회였어요. 대학마다 농촌계몽 서클이 있었어요.

이대 사회학과 학과장이면서 지도교수가 고황경 박사였는데, '내가 남산농촌사회연구회란 서클에 관련이 되어 있다. 와라' 그래요. 남녀 혼성 서울 시내 대학생들 종합 서클이에요. 지금 남대문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신축하느라 지하만 있을 때, 교회 한쪽을 빌려서 서클 활동을 한 거예요. 토요일에는 거기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일요일에는 광나루 밖에 수재민을 위한 모범주택을 짓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흙벽돌로 농촌형 주택과 도시형 주택도 짓고 그랬어요.

1학년 1학기 초에 이대 사회학과 1학년 30여 명이 거기 남산농촌사회연구회에 몰려갔다가 나중에 나하고 다른 친구하고 둘만 남았어요. 그렇게 활동하다가 남산농촌사회연구회의 마지막 회장이 나였어요. 60년대 중반쯤에도 종합 농촌 서클이 있기도 했는데, 다 흐지부지됐어요.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잖아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들어서 공업화, 산업화 사회가 되니까 노동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농촌문제는 이제 밀려났어요. 그래도 전 계속했어요. 일생 동안 농촌사회 연구를 해온 셈이지요.

###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사회에 관한 일을 하셨나요?

1963년 1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 1월 4일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출근했어요. 당시 의과대학에서 인구연구를 하니까 사회학 연구자가 필요했어요. 조사연구 하고 조사자료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했지요. 당시는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니까 미국인구협회에서 한국 인구연구를 위해 돈을 투자하던 시기에요. 박정희 시대에 가족계획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산업화는 결국 먹는 입을 줄여서 성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에 참여하던 당시, 어느 날 캠퍼스 안에서 우연히 이효재 교수님을 만났어요. 서울여대로 옮기셨던 당신이 다시 이화여대에 오셨고, 이대에서 연구소를 만들려고 보니까 일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학원을 마쳤고 연대 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너, 와라.' 그러셨죠.

당시 대학원 마치고 연세대에서 연구원을 하면, 대학에서 무급 전임강사 발령을 내고 월급은 미국 인구기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일단 전임은 전임인 거였죠. 근데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화대학으로 옮겼어요. 존경하는 모교의 교수님이 오라니까 무조건 옮긴 거죠.

1971년 5월에 이화대학교 문리대학 연구소로 옮겨 가니까 월급이 반 토막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곧바로 가을 학기에 시간 강의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내가 서른한 살이었어요.

### 이이효재 선생님과 어떤 연구소를 하신 건가요?

연구소 이름이 여성자원개발연구소였어요. 당시 연구소 이름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여성을 자원으로 본 거니까요. 내가 거기서 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도시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부들의 조직화였어요. 서울의 마포 시범아파트와 화곡동 주택단지를 연구지역으로 정했어요. 양쪽 지역 문제를 사전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주부대학을

열었어요. 강의 중에 지역조사를 통해 확인한 두 지역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과 토론을 했지요.
마포 시범아파트는 한강 변에 있었고, 화곡동은 대단지로 택지가 개발되던 시절인데, 여유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화곡동에 많이 입주했어요. 이화대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니까 화곡동 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동장님 모두 협조를 해주셨어요. 교육을 유치원에서 하다 보니 유치원과 학교 자모들도 강좌에 많이 참여했고요. 그때 참 의미도 크고 재미있게 일을 했죠.
화곡동 개발 초기에 집이 뜨문뜨문 있으니까 소비재 구입이 문제였어요. 갑자기 수세식 변소로 바뀌어서 화장지를 많이 사야 하는데 슈퍼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동구매에 관한 원리, 소비자 협동조합의 원리를 내가 강의하고 공동구매도 했어요. 그게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거였지요.
연구담당자였던 나는 <소비자 보호와 구매클럽>이라는 책자도 쓰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연구소에서 그 프로젝트하면서 사회학과 강의도 했으니까 이화대학에 진입을 한 거였죠.

## 일하며 배우며

### 살구여성회를 할 수 있게 한 경험이었군요. 그럼 어떻게 금천구에서 활동하시게 되셨어요?

금천구에 살게 된 건 사연이 있어요. '68년 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주 토요일에 결혼했어요. 당시 우리가 30,000원에 2,500원짜리 사글세를 들었는데, 이웃에 사는 남편 친구가 사건에 걸려서 잡혀 들어가니까 집주인이 우리 보고 나가 달래요. 임신은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동생들하고 합쳐서 모래네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시민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오래요. 가보니까 방 두 개에 수세식 변소도 있고, 산꼭대기인데도 수도가 콸콸 나와요. 와,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거기에 힘들게 들어갔어요. 실 평수가 8.5평인데, 서울 시내에 대한민국 역사상 관청이 지은 가장 작은 평수 아파트예요. 사실 그때 북가좌동에 방 2개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었어요. 택시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 둘째를 낳아 안고 들어가다 아기가 비를 맞아 입원까지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부인이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나가래요. 딸만 하나 있는 집인데, 세 들어 사는 내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된대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면서 이제는 절대로 셋집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연희동 시민아파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약 7년 살다가 다시 결사적으로 노력해서 그다음에는 1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 연희동에서 어떻게 독산동으로 오시게 됐나요?

구로노동자회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한번은 운동권들 모임에 갔다가 정양숙 씨를 만났어요. 어디 사느냐고 해서 시민아파트 산다고 하니까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일곱 식구가 살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주택조합이 있으니 들라고 권했어요. 조지송, 인명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교회재단의 외원을 받아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지을 거래요. 시흥고개에 땅 1400평을 사서 50평 단위로 노동자 주택을 지을 거니까 자기네와 같이 하나를 분양받재요. 돈이 없다니까 잔금 낼 돈을 우선 빌려준대요. 그렇게 주택조합을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들이 집값을 다 낼 수가 없으니 외원을 얻어서 짓고 장기 상환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어디 관청이든지 은행이 보증을 서줘야 한다는데, 대한민국 어느 은행도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신협도요. 공동주택 안에 유치원, 식당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결국 못 짓고 땅을 분할 했어요.

분할 할 때 목 좋고 시장 가까운 데는 남들이 다 차지하고, 맨 끝에 체비지가 우리 몫이 되었어요. 조합원들은 차례로 집을 짓는데,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정양숙 씨와 우리는 집 지을 엄두도 못 내죠. 여러 해가 지나 남편과 찾아가 보니 동네가 되었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들도 자라서 18평 아파트는 터질 것 같았고, 그래서 공동 분할 받았던 분에서 나머지 땅을 사서 남편이 아마추어로 우리 집을 지었어요. 그곳이 독산2동 1070-20번지에요

**유학은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석사를 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시간 강사를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외국 가서 박사를 안 하면 대학교수 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효재 선생님이 그간 고생을 했으니 외국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주선해주셔서 덴마크에 갔어요. 오르후스에 있다가 코펜하겐을 갔다가 동양연구소에서 코펜하겐대학교 가족사회학 교수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요청으로 오르후스에서 코펜하겐으로 옮긴 뒤, 스터디 투어로 스웨덴을 갔어요. 웁살라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를 만나고, 그 교수 추천으로 웁살라대학 사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죠.

처음엔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다니다가 장학금을 연장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몇 달 후 웁살라로 갔지요. 종일토록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애들 넷을 두고 갔으니 열심히 해야죠. 애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려 보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안 와요. 알아보니 이미 정보부에 잡혀갔어요. 그걸 알고 바로 돌아왔죠. 남편이 7년 형을 선고받더라고요. 다시 스웨덴에 못 갔죠. 박사과정 3분의 2를 마치고 유학은 중단됐어요.

**자녀분이 넷인데, 특별한 교육철학이나 비결이 있나요?**

나는 아이들에겐 공부를 가르치는 거보다 그냥 많이, 잘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우선 충분히 먹여야 해요. 그게 내가 우리 집에서 자식 넷을 기르는 원칙이에요. 배부르게 먹이고 집안에 읽을거리만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잘 먹여 보세요. 애들이 훤해져요. 잘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건강하죠. 어렵게 살면서도 먹이는 건 잘 먹이려고 했어요.

**결혼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요, 남편 때문에 살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살지도 않고. 그렇지만 가족 누구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저는 스칸디나비아 명문인 웁살라대학교 박사 공부를 하다가 남편이 감옥 가는 바람에 못 끝냈지만, 그래도 나중에 대학교수가 됐잖아요?

우리 남편이 평생 돈을 잘 못 벌어요. 농민운동가가 뭔 돈을 벌겠어요.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도 나는 남편의 세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남편 수입으로 살아본 건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던 때가 다예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다행히 빚은 안 져요. 그리고 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말도 없고 탈도 없어요. 잡혀가고 고문받고 큰 탈을 내서 그렇지 아무거나 먹고, 그냥 자기 일 방해만 안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입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오셔서 한신대 교수가 되신 건가요?**

한신대를 금방 갔겠습니까? 오전에 재판정에 갔다가 오후에 시간 강의도 하고 그럴 때, 전북대에 전임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류 통과가 됐는데 총장 선에서 안 된대요. 6개월 동안 이유를 대라고 청와대를 들볶아도 해결이 안 돼서 시간 강의도 그만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82년 8.15에 갑자기 석방됐어요. 그다음 날인가? 한 후배가 강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한신대를 추천했어요. 한 학기 강의한 후 교수채용이 있기에 서류를 냈더니 채용됐어요. 그 당시 한신대학에 나 같은 교수가 여럿 있었어요. 한신대학 강의를 한 학기 한 후 '여기 전임 좀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이 되면서 사회사업학과를 학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전임교수가 없더군요. 후에 사회복지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옛날 이화여자대학에서 했었던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조직 사례잖아요.

##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신대 교수를 하면서 금천구에서 살구여성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확고해요.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금천구에 우연히 집을 지니고 살게 됐어요. 대학에서 지역사회조직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걸 뻔히 보면서도 입 싹 씻고 있으면 지나치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거지요.

사회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으니 지역복지를 위해 뭘 해보는 척이라도 하자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결실이 된 거죠.



여러 형태의 조직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온건한 활동을 택했죠. 진짜 운동권처럼 마을 활동을 하려면 좀 더 과격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내가 원래 조직 활동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대학교 3학년 때 지리산 쪽으로 농촌계몽을 갔는데, 거기서도 농촌 부녀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권유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게 했어요. 하하. 가는 곳마다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은 그게 조직 아닌 조직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구여성회를 지켜보시면서 언제가 가장 활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조직 활동이 '활발'하다는 게 하던 것을 그냥 하는 건 '활발'한 게 아니에요. 시대 조류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아, 나도 여기 참여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활발한 거지요. 단체나 개인이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면 퇴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단체라는 게 묘하죠.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지도력이 개발되고 향상되는 게 중요해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더 큰 기여라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살구회에 직접적인 이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참여자가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를 눈치껏 보고 배워서 다른 데 가서 단체를 해본다든지, 지도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큰 성과이지요.

사실 살구회 활동가 중에는 그냥 내버려 둬도 성장했을 사람도 있어요. 살구여성회는 그런 여성에게도 촉매제는 되었겠죠.

**어떤 방법으로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

게 하는 편이지요. 살구회에 어떤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조사 참여할 사람들에게 조사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조사에 참여시켰어요. 그러면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실제 지역 여성들끼리 어떤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이 또 즐겁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지도력이 개발되는데, 자기들은 지도력 개발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지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단체에서 성장했다면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감도 필요해요. 물론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도 쉽지가 않죠.

**지도력 얘기가 나왔는데, 왜 여성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나요?**

여자도 사람이니까 정치를 해야죠. 간단해요. 남녀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치가 뭔데 여자는 못 하고 남자만 해요? 밥도 왜 여자만 해? 남자가 해도 되잖아요. 전기밥솥이 하는데. 나는 정치가 안 맞고 다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할 뿐이었고, 여성들이 정치를 하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살구여성회는 무슨 사업을 하든 조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단체나 조직은 그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또 마침 할 사람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확인했어요. 대대적인 조사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케이스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혹 사업을 하던 조사에 근거해서 해야지 무작정 대고 내가 이거 좋으니까 한다 이거는 자기 오만이에요.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고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80년대부터 90년대 초는 우리 사회가 조직화 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배운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 활동을 했지요. 예를 들면 여성민우회 같은 단체. 그런데 나는 그런 활동은 안 했어요. 대신 이미 '83년도부터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여성의 전화'에는 좀 관여를 했어요.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매 맞는 여성 통계도 내도록 돕고, 또 사회문제론 시간에 그런 여성들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인권에 대해 고민도 했죠. 사회복지일 하는 사람의 관심이 갈 곳에 치중한 거죠. 언젠가 은사이신 이효재 선생님께서 민우회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성의 전화만 하겠다고 했어요. 난, 의리파인가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반짝이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이리여자중학교를 나왔는데, 학도호국단이 생기던 시절이에요. 나는 반장 같은 걸 못하고 안 하는데, 3학년 때 학도호국단 대의원을 하라고 해요. 반 친구들이 추천해서 하기로 하고 대의원회 첫 모임에 갔어요. 운영위원장을 뽑는데, 1,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을 모르니까 3학년 대의원 언니들이 차례로 나와서 한마디씩 하래요. '나는 반장도 안 하는 사람이고, 감투 쓰는 것도 싫고, 책만 읽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글쎄 내가 뽑혔어요.

'50년대 후반에는 관변 데모도 많고, 도내 학교별 배구대회도 많았어요. 그러면 체육 담당 선생님하고 학생 지도부가 군산에 운동시합이 있으면 군산에 가고, 전주에 있으면 전주에 갔어요. 3학년 내내 그러고 다니고 나

니까 이리여고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거의 2주간을 거의 밤을 새워가며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리여고에 가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억지로 입후보시켜 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반장도 못하던 제가 개화한 거죠.

## 후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요즘은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나요?**

살구여성회의 활동 자료집을 내는 거예요. 살구여성회 모집 요강부터 참여 인원, 실시한 모든 프로그램 내용을 담아서요. 이 시대 사회 분위기와 우리 지역의 여성 활동들을 후대의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지요.

대학교수가 얼마나 책임이 큰 사람들입니까? 교수라고 대우받고 잘 살았으니 죽기 전에 활동하던 자료라도 정리해서 내놓고 생을 끝내야 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26년간의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져요.

서론만 대여섯 번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못 쓰고 있어요. 일생 처음 경험한 사태지요. 그래도 1991년 10월 활동부터 내가 직접 관여했던 2017년 2월까지의 모든 활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살구여성회의 민낯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지요. 단 각 활동에 대한 평가 부분은 생략할 거예요. 이 자료를 보게 될 사람들에게 맡겨야죠.

26, 7년간의 모든 활동자료와 기록을 정리하려니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시작을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후대의 지역 활동가들을 위해 활동 보고서를 끝내보려고요.

**학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수님이 건강하셔서 살구여성회 30년 활동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살구여성회 30년을 돌아보며

유인숙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넉넉하진 않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따뜻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쌀이며 반찬을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분들이 있어 살구여성회는
이런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고맙고
감사 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살구여성회는 초기의 10년인데 너무나 순수했던 시절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으며 내 젊은 날을 돌아볼 때
아! 내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지 하며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곳이라 생각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분이 선생님을 인터뷰 대상으로 추천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살구여성회를 다녀간 사람이 많았지만 제가 1기 회원이다 보니 예전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책을 내실 때 "유인숙씨는 일은 많이 했는데 자료를 찾다보니 사진이 없더라."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구여성회에서 묵묵히 해온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살구여성회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살구여성회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처음 살구여성회 광고 전단지에 "여성이 지역사회 주인 되자. " 라는 말이 맘에 들어 물어물어 찾아 갔는데 현대시장 안에  미용실건물 지하는 너무나 열악해서 사무실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고 얼마 못가 문을 닫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태드릴 것은 없고 "내가 매일 와서 청소라도 열심히 해 드리면 이분들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부지런히 다녔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네요. 그렇게 시작한 살구여성회에서 처음 맡은 일이 어떤 활동이었나요?**

그 당시는 지금의 벽산아파트 자리가 무허가 판자촌 이였고 어려운 이웃도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봉사 활동을 하게 됐으며 그러다 보니 밥집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나 분리수거 개념이 없던 시절 이라 살구여성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보겠다며 환경에 대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일이 많아졌고 언제나 일할 사람은 부족했기 때문에 환경분야 일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 공동대표로 선출, 묵직한 책임감의 시절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 살구여성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공동대표를 맡을 때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회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는데 외부이사를 영입하고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않는 조건으로 회장을 맡아 달라 해서 일만 하기로 하고 임송자 선생님과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이사가 오면 해결 되는 줄 알았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임,직원들의 고민거리는 재정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정 이야기만 나오면 회장인 나는 바늘방석이었고 나중에 외부에서 들리는 말이 "회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능력 없으면 회장을 맡지 말았어야지"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모든 게 재정 문제라고 봐야겠지요. 외부 프로젝트를 받아와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라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임원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도와야 했습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는 밥집운영이 큰 부담이었지요. 밥집은 보람도 많지만 일도 많고 힘들기도 한데 그 당시에도 구청에서 약간의 금액이 나오긴 했으나 턱없이 부족해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열심히 후원을 부탁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시설도 열악해서 식사 후 뒷마무리로 그릇과 수저 등 모든 물품을 삶아야 했는데 가스렌지 위에 큰

들통을 올려놓고 삶으려면 의자를 놓고 올라서도 짧은 팔로 뒤집고 꺼내기가 힘들다 보니 너무 무리를 했던지 팔이 아파서 한동안 숟가락도 못들 정도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밥집에 애정이 있다 해도 책임만 강조하면서 그나마 후원받던 물품까지 중단 하겠다며 이제는 회장이 알아서 운영해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모든 걸 놔버리고 도망치고 싶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은 활동한 거지요?**

살구여성회서 이런저런 활동은 만10년 했고요. 그중에서 밥집은 5년 했습니다. 시흥2동 달동네 어르신들과 고물 줍는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대로 된 주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밥집을 하기로 하고 그릇이며 수저 젓가락 등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사용하다 보니 젓가락도 가지가지라서 짝을 맞춰 놓는데도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젓가락은 같은 걸로 사서 사용했더라면 일하기가 조금은 편했을 텐데 참 융통성 없이 순진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활동하셨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공동대표로서 좀 더 잘하지 못한 점도 아쉽고 무엇보다 기초의원을 한명쯤 배출했더라면 살구여성회 활동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당시 한국여성사회 교육원에서는 지역 단체에서 여성후보를 내는 문제로 여러 차례 강의도 했었고 임원들 개개인을 설득도 했지만 모두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비례대표 제안이 들어왔으나 역시나 모든 임원이 거절 했었고 회장이란 이유로  저를 추천하려 했으나 거절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후회는 없지만 조직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미안하고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하나는 초기 임원들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셨던 아까운 분들을 끌어안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 본의 아니게 너무 심적 부담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담 없이 재능기부만 하라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살구여성회에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놓친 것이 참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공동대표를 그만두고 살구여성회 활동을 안 하는 건지요?**

너무 지친 상태로 그만 뒀기 때문에 다시 참여 한다는 게 겁이 났었고 그 사이 사람들도 바뀌어서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어려움을 알기에 작은 마음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 매년 조금씩 후원금을 보내다가 작년부터 그만 뒀습니다.

## 살구에서 완성한 제 2의 인생

**살구여성회가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열등감과 배움의 목마름으로 원망과 불만이 많았었지만, 살구여성회를 와서 보니 30대 인데도 한글을 몰라 불편함과 서러움에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B.C도 몰라서 상표를 거꾸로 붙이는 바람에 직장에서 야단을 맞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달동네 쪽방에서 어렵게 사는 이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몰랐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으며 그때부터 매사에 감사하며 작지만 꼭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장직을 그만두고 방통대를 갔는지요?**

제 나이 마흔다섯이 됐을 때 지치기도 하고 여기서 일을 계속하다가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려 했지만 무료급식을 맡을 후임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검정고시 반을 다녔으며 그 후 방통대 입학 후 2학년 되던 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고 살구여성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살구여성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 합니다.
순수했던 시절 10년을 열정으로 활동했던 곳이라 잊을 수 없는 곳이고 보람도 아픔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키우는 성장통 이었다 생각합니다.

**살구여성회가 곧 30주년을 맞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구여성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로 남길 바라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하는 바램 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이랑 주부대상 공부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예전처럼 절박함도 덜 한 것 같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전문가와 더불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살구여성회에서 보낸 10년은 유인숙 선생님에게
젊은 날을 돌이켜 보고 자신도 몰랐던 열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기준점이었다.
이제는 선대 회장으로서 자신의 젊은 날과 닮은
활동가들의 어깨를 다독다독 두드리며
살구여성회에 대한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다

#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우영화



한글, 한문,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한 기수에 수백 명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사연, 목소리 하나하나가
슬프면서도 재미있고 소중했어요.
이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겸허해졌죠.

##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

### 살구여성회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나요?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풀뿌리 시민운동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 대학 은사님이셨던 김주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살구여성회 같은 조직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복지론 수업 시간에 듣기도 했고, 관심이 있어 저도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1993년 대학을 졸업한 해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거의 9년 가까이 살구여성회에서 일을 했어요.

###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살구여성회가 추구하는 것과 자신의 지향점이 맞았나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해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학술부에서 사회복지정책분과, 사회복지실천분과 이런 걸 만들고 각 정당 사회복지공약을 조사해서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비교분석도 해보고, 공부방 같은 곳에 자원봉사도 다녔어요. 일반 시민들과 같이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막연하지만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구여성회가 저의 지향과 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지역에 대해 잘 몰랐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삶의 애환도 공감하기가 힘들었죠.

###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먼저 활동하셨던 선생님을 보고 배우며 따라 했어요. 살구여성회는 '여성들의 성장과 주도적인 사회참여'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1990년대 금천구에는 사회복지기관이 별로 없어서 한글, 한문,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한 기수에 수백 명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사연, 목소리 하나하나가 슬프면서도 재미있고 소중했어요. 이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겸허해졌죠.

그리고 그때 김주숙 교수님과 정외영 선생님이 계셨어요. 두 분은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항상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해나가셨어요. 저는 사회복지활동가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중심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활동방식은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 살구여성회 일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들어갔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독일 아데나워재단의 프로젝트였는데, '3년 안에 지역 여성조직을 설립'하라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가 살구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복지회관 세 단체였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관이 여성사회교육원이었는데, 연간 1,500만 원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거의 20여 년 전이었으니까 상

당한 금액이었죠. 한 사람 인건비, 임대료 일부, 교재 개발비, 교육비 같은 지역 여성조직을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재정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월1회 정기회의를 하면서 사례공유와 성과관리 등 실질적 운영지원을 해주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구여성회는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임송자, 유인숙, 김영숙, 노금숙 이런 선생님들이 중요한 리더셨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환경분과, 독서분과 이런 걸 만들었어요. 환경분과는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실행했어요. 지역복지분과는 재가사업 같은 것도 하고, 펀드도 따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저는 행정적 업무나 자원 동원에 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가 3년이 지나면서 지원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당시 지역조직에 수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논의를 했더니 운영위원인 여성교실 선생님들이 강사비를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한글, 한문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여덟 번 수업하고 1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애쓰시는 것에 비하면 큰돈도 아니었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시니 해결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른 수익사업을 찾고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었죠.

**살구여성회 일을 하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건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죠. 선생님들이 직접 한글, 한문 교재도 만들고,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런 것 자체가 모두 성과잖아요. 제가 가진 지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좋았죠.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무료 급식소 운영 등 사업을 넓혀가면서 포럼, 주부대학 같은 것을 했어요. 살구여성회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제가 봤을 때 모범적인 사례였죠. 한국여성개발원 같은 곳에서도 사례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재미있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살구여성회가 중앙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해야 해요. 그때 여성사회교육원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처럼 함께 논의할 중앙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어요.

**살구여성회 활동을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역주민인 선생님들이 살구여성회의 가치와 지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차세대 지도력을 양성하며 성장했어야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것을 이루기에 당시 제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죠.

##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

**살구여성회 활동이 현재의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살구여성회에서 했었던 일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라는 공익활동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때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지금 여기에서 일할 때도 근간이 되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념과 계층이 다양한 시민들이에요.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힘을 느낄 때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죠.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행복하다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책임지는 사회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수용되는 사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고, 들어주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 우물 밖 새로운 세상을 만나

송금옥



‘함박웃음’과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저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행복했고
살면서 40대, 10년 모든 걸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후회 없을 만큼 다 쏟아부었어요.

## 살구여성회에서 동화읽는어른모임을 시작하다

### 살구여성회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른들의 동화 읽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벽보가 눈에 딱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지요. 그게 1997년인데, 살구여성회가 시흥4동 김진수 치과의원 자리에 있을 때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여성학자들이 와서 주부들에게 여러 강의를 했어요.

### 그 강의에 몇 명이나 왔어요?

한 30명 좀 넘었죠. 그때 강의를 듣고 동화읽는어른모임이 전국에 있는 줄 알게 됐죠. 그래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끼리 우리도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 좋다' 해서 1기가 만들어진 거지요. 몇 명은 빠지고 우리가 4월에 그 강의를 들었는데, 5월에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이 결성됐어요. 그러니까 살구여성회에서 주최한 강의를 듣고, 독자적으로 단체를 하나 만든 거지요. 어린이도서연구회 소속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을.

'98년에 살구여성회에서 2기 모집해서 1, 2기가 같이 공부했고 3, 4기 신입회원은 함박웃음 자체에서 모집했어요.

### 살구여성회에서 동화읽는어른모임 외에 다른 활동들은 안 하셨나요?

살구여성회에서 밥집을 운영하게 됐을 때, 우리 함박웃음 회원들이 반찬 한 가지씩 해가고 그랬어요. 저도 호박 볶아간 기억이 나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연체험도 가고. 살구여성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모임을 잘 했어요.

### 살구여성회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금천구에 구립도서관이 생겼어요. 회의에서 도서관하고 우리 모임하고 공통분모가 있으니 모임 장소를 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다들 그게 좋겠다 했는데 살구여성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살구여성회는 함박웃음을 살구의 한 조직으로 생각한 거지요. 살구여성회가 주관하는 강의를 듣고 태생을 해서 그 장소를 쓰면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독자적으로 했으니까 살구여성회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부딪친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주숙 교수님께서 통 크게 '그래, 어차피 이 지역에서 활동할 사람들이니 어떠냐, 그럼 좋다. 가서 열심히 해라' 하셨죠.

### '함박웃음'이란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살구여성회에 '함박웃음'이란 표구가 있었어요. 한국 검도계의 거장인 오병철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래요.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표구를 보고 '저 함박웃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저걸로 하자' 이렇게 함박웃음이 됐어요. '함박웃음' 이름은 놓고 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소소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 '함박웃음'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만들다

### 그럼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언제 어떻게 만들었나요?

함박웃음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보를 공부하는데, 거기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소개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해보면 안 돼?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합시다. 내일 모래 답사부터 갑시다' 그래서 직접 도서관도 보고, 관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진행을 했죠.

장소를 구한다고 7, 8월 한여름에 두 명씩 짝을 지어 금천구를 다 돌아다니다 마침 회원 시아버지 상가건물에 세 들어 있던 사람이 나간대요. '그럼, 거기 하자' 그래서 은행나무사거리에 도서관을 열게 됐어요.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깨끗한 책으로 가져오고, 출판사에서 후원도 좀 받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02년 9월에 개관을 했죠. 그때 함박웃음 아버지 모임에서 에어컨을 기증했어요. 아버지 모임이라고 해봤자 우리 남편들이고, 돈도 우리 돈이죠. 쌈짓돈.

###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거 같아요.

어려움은 어느 조직이나 다 있다고 봐요. 그런 갈등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서로 잘하려고, 발전시키려고 자기주장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건 도서관을 만들 때 제일 힘들었었죠. 저희가 가진 돈이 3300만 원이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처음에 회원들이 1기부터 3기까지는 300, 4기는 100, 5기는 50만 원, 근데 그 돈이 누구는 참 눈물겨운 돈이었어요. 누구는 대출받아서 내고, 누구는 도배로 돈을 벌어 내고, 가족들, 지인들한테 후원도 받고, 전단지를 만들어 우리가 직접 금천구에 있는 병원, 약국, 식당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하여튼 그렇게 모아진 게 330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건물 얻고, 도서관 실내장식도 하고. 실내장식을 할 때는 좋은 일한다고 좀 싸게 해주시고 했어요. 회원들도 도서관에서 밤새워가며 인테리어며 책 라벨 작업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개관하는 날 막 서로 울고… 아유, 내가 옛날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네.

근데, 혹시 옛날에 '책. 책을 읽읍시다' MBC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 그때 유재석하고 김용만 둘이 우리 도서관에 왔었어요. 그래서 TV 방송을 통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은 가고

### 지금도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나요?

한 10년 전 관장한테 '그만하겠다' 하고 딱 끊었어요. 계속 안 하다가 작년에 도서관에서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완전히 푹 빠져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하는 건 좀 그래요. 후배들 일하는데 이건 아니네, 저건 잘하네 그러면 선배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 같잖아요.

### 도서관과 '함박웃음' 활동이 선생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아, 되게 어렵네. 그냥 특별한 변화를 떠나서 저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행복했고 살면서 40대, 10년 모든 걸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후회 없을 만큼 다 쏟아부었어요.

### 살구여성회는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확장되었지요. 내 가족만 챙기고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보았고, 마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마을공동체라는 게 별거지만 별게 아니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가면 그게 마을공동체네요.**
**'함박웃음"과 도서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 서로 도우며 사는 행복이란

## 김무메



살구여성회를 이용하는 지역 여성이
다시 살구여성회를 통해 봉사하는 사례는 흔한 편이다.
살구평생학교의 수강생인 김무메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다.
김무메 선생님은 살구여성회를 통해
어릴 적 이루지 못한 배움의 꿈을 이루고
또 봉사에 참여하며 서로 돕는 인생의 아름다운 표본으로 살고 있다.

## 느즈막이 찾아온 배움과 봉사의 기회

### 살구여성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대명시장 안쪽 지하에 사무실이 있을 때부터였어요. 아주 오래됐죠. 그때 살구평생학교를 통해 영어와 한문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공부에 욕심이 많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일찍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시절 '여자는 시집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 신문 배달이 오면 신문에 있는 글자를 따라 쓰면서 글자 연습을 했어요. 그만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살구여성회의 문해 교육이 제겐 큰 기회였고 기쁨이었죠.

### 그렇게 살구여성회에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됐나요?

공부하러 살구여성회에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경로 무료급식소의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구여성회에 처음 온 게 50대 초반이었으니 60대 초반까지 1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봉사도 함께 한 거죠.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치우고 나면 활동가들과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 살구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산동에서 바자회를 열었을 때요. 바자회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김자반을 만들어 포장했어요. 그걸 바자회에서 팔아 수익금을 살구여성회에 기부했죠. 그런 소소한 기부를 몇 번 했는데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또 충청도에 사과 따러 간 일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릴 적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해서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살구여성회 사람들과 사과 따러 간 그날이 저한테는 수학여행이 된 거예요. 정말 즐거웠죠.

## 일생의 소원, 소중한 졸업장

### 살구여성회와의 좋은 경험들이 김무메 선생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줬으리라 짐작됩니다.

배우는 기쁨 그게 가장 큰 영향이죠. 살구평생학교를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집안 살림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배워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 들었죠. 그래도 원격수업이 열리니까 배울 만해요. 지금 제가 초등 4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졸업장을 따고 싶습니다.

### 원격수업이 어렵진 않나요?

저야 알려주는 대로 듣고 누르면 되니까 괜찮은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공부에 열의를 갖는 것도, 원격수업에 적응하신 것도 대단하세요.

저는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던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삶에 있어 살구여성회는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게요.**

기쁨을 주는 곳이요. 내가 꿈꾸던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봉사활동의 기쁨도 알려준 곳이죠. 제가 살구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한글 교육을 받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살구여성회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 지역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역주민을 믿어야

**한진**



한글을 가르치는 건
퀼트나 뜨개질을 가르치는 거와 달라요.
한글을 모르는 건 버스를 탈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힘들다는 거예요.
한글을 깨우쳐가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꼈죠.

## 지역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 간사로 일할 당시 살구여성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했나요?

저는 96년도 6월부터 99년까지 살구여성회에서 간사로, 사무국장으로 일했어요. 그때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이 청담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도 없을 때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설이나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살구여성회가 많은 것들을 했어요. 공부방, 문해교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주민 모임 이런 것들을 했어요. 지역에서 요구되는 복지문제를 지역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일을 했죠. 이사진이나 운영위원 같은 임원분들이 모두 지역 여성분들이었어요. 저와 같은 간사들은 지역주민들이 논의하고 계획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했죠.

### 여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로 녹색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한글 수업도 하고, 공부방, 밥집 다 했어요. 그중에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죠.

한글을 가르치는 건 퀼트나 뜨개질을 가르치는 거와 달라요. 한글을 모르는 건 버스를 탈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우쳐가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꼈죠.

여성들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자는 여성단체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 살구여성회와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살구여성회를 살구복지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살구여성회에서 했던 일을 가장 비슷하게 하는 공공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일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서 복지사업들을 시행하는 곳이 복지관인데, 살구여성회 역시 그런 일을 했어요.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지역주민을 믿어야

### 살구여성회의 경험이 지금 일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제가 지금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전문적인 상담, 사례관리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을 해 왔어요. 살구여성회에서 했던 여러 조사 활동부터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사회복지 쪽에서 아직도 지역전문가가 기획하고 주민들은 동원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역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데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지역주민이 기반이고, 지역주민들을 믿어야 한다는 걸 전 몸으로 배웠죠. 당시에 20명 정도의 운영위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여러 사업을 진행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조사 과정 자체가 조직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조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조사방법도 너무 다채롭잖아요. 양적 조사만 조사가 아니고, 소수 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직접 주민들을 질적 조사를 할 수

도 있고요.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더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사할 때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요.

**살구여성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살구여성회 활동이나 교육 참여를 통해 지역에 단체를 만들었거나 연계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활동이 살구여성회에 모여있어야 조직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구여성회를 통해 얻은 배움과 가치들, 함께 꿈꿨던 지역사회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살구여성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직도 생명체와 같아서 기승전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순리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살구여성회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나 인력문제로 조직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디어의 문제라기보다 리더십과 인적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살구여성회의 전통과 지역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리더십을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 새로운 활동이나 인적구성 없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만 진행한다면 나아질 건 없겠죠. 지역 안에서 뭔가 욕구가 있는데 단체를 못 만들어서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비영리법인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멤버십을 해서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지요.



# 우리도 학교가 있다

## 최현남



최현남은 오지랖이 자기 팔자라고 한다.
돈이 없는 것도 자신의 팔자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 배짱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팔자 아닌가?

## 살구여성교실에서 살구평생학교가 되기까지

### 살구여성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제가 98년에 금천구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오게 됐어요. 민중 목회자교육에서 김주숙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때 인연으로 여러 도움도 받고 살구여성회회원이 되고, 한문강사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살구여성회 이사, 공동대표, 부회장도 했다가 지금은 살구평생학교 교장을 맡고 있어요.

### 살구평생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초등학력 인정과정과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어요. 살구여성회는 설립 초기부터 여성, 주부, 어린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한글반부터 한문, 영어, 꽃꽂이, 피아노 다양한 강좌를 열었어요. 그런 과정이 모태가 되어 2006년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성인문해학교기관으로 살구평생학교가 되었어요.

2015년부터는 성인들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과정도 해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다 있어요. 1, 2, 3단계를 마치고 자격이 되면 교육감이 주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죠. 저도 2단계 '배움의 나무' 과정 교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 살구평생학교 학력 인정과정에는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오시나요?

30여 분 정도 돼요.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해서 우리나라로 온 젊은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그분들은 적응을 잘 못 하시고 6,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이나 저나 3년 공부하면 졸업한다고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는 중등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초등과정과는 학습량이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구청에 건의했더니 징검다리 같은 중학교 예비과정이 생겼어요. 초등과정을 마친 어르신들은 예비과정을 다니시면서 우리 학교도 나오세요. 그래서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3년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4, 5년은 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 중등학력 인정과정이 우리 구에도 있나요?

우리 구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경일학교가 있을 때는 거기 다니시면서 평생학교로 숙제하러 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중등과정 어르신 공부를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길동 '서현학교'까지 가야 해요. 차비도 들고, 어르신들은 오고 가기도 버거우시죠. 살구평생학교를 발전시켜 중등과정까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그런데 중등과정은 각 과목마다 선생님도, 교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교무실도 따로 있어야 하고요. 그런저런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이곳도 재개발로 쫓겨날까 말까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요.

### 살구평생학교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문해교실에 몇 년 나오시던 분인데, 졸업은 못 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뭘 그렇게 해오셔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오셔서 제가 도울 게 있을까 해서 댁으로 찾아갔어요. 군대에 가서 식물인간이 돼 돌아온 아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새벽 4시부터 목욕시키고, 음식 만들어 먹이고. 그 아들이 누워서만 지낸 게 3, 40년 가깝게 됐는데, 욕창 한 군데 생기지 않았대요. 그분에게 방문수업을 하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기쁘고 뿌듯해요. 아들을 보살피며 열심히 사시는 그분 모습을 등대처럼 늘 제 마음에 담고 있어요.

**오랫동안 살구여성회에 관여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두 개가 아니지만 2003년도에 금천구 지도 만들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자청해서 한 게 '금천구에도 미술관이 있어요'예요. 동네에 큰 빌딩이 지어지면 미술작품도 하나씩 생겨요. 미술관 하면 과천 현대미술관이나 덕수궁처럼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 카메라를 들고 금천구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천구 사람이 됐죠.

## 반짝이던 순간 - 그게 하나라면 서운해요

**'살구여성회가 가장 반짝이던' 순간,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살구평생학교를 만들었을 때요. 그전에는 한 공간에서 밥집도 하고 살구여성교실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했어요. 그러다 성인문해학교를 하자고 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원해주신 자금으로 지금 무지개 상가 건물에 사무실과 교실을 얻어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금난다고 하죠?

'아, 우리도 학교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교수님과 금천구 놀이터와 공동화장실 전수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고치게 하고, 쉬는 토요일에 놀이터 문화학교를 했어요. 그때 놀이터 문화학교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지금도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살구여성회가 선생님께 갖는 의미를 비유로 표현한다면요?**

아픈 손가락? 늘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많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쉬움은 많고.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지금은 살구여성회에서 활동을 안 하시지만 지금도 같이 일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신가요?**

공영옥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베트남에 계세요. 영어를 가르치셨고,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시고, 아주 열정적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오시면, 다시 손을 맞잡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의욕도 많으신데,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하면서도 여건이 안 돼서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있나요?**

음, 하지 못한 건 없어요.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한 게 많아서 그렇지. 하하. 처음 금천구에 왔을 때, 골목 계단이나 놀이터에서 잠자는 아이들, 열쇠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만났어요. '아이들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집에 데려다 재우고, 재우기만 해서 뭣 하니까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새움공부방을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공부방은 금천구에서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였어요. 새터교회에 탁아방이 있었고 어린이학교도 있었지만, 공부방으로는 처음이었으니 제 나름으로는 구상이 컸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공부방 지도교사, 상담사 그런 자격도 따고 '내가 이 정도면 뭐 잘 하겠지' 했죠. 하하, 나 혼자.

그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정식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부방이 지하라 결국 인가를 못 받았어요. 조금 나은 곳으로 애들 보내고, 지금은 그냥 지원받는 거 없이, 그때 가지 않고 남은 아이들 몇 명과 지내고 있어요.

**살면서 선생님이 가장 반짝이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반짝이던 순간? 젊었을 때, 하루를 25시간 살았을 때.
제가 농촌 운동을 좀 한다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침에 탁아소하고. 낮에 새참 만들고. 저녁에는 야학을 했어요. 못 배웠어도 떳떳하게 자기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 청년들을 도왔던 2년. 짧았지만 열정적으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에서 야학을 한 것도 그 미련이 남아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반짝이던 때가 하나라고 하면 저는 좀 서운해요. 새움공부방을 만들어 혼자 꾸려나갈 때. 스무 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땅끝마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정말 안 간 곳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저를 거쳐 간 아이들이 그래도 큰 탈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젠 아이들 만나면 술도 같이 한잔해요. 제가 걱정된다고 아이들이 전화도 가끔 해주고. 그런 거 다 감사하고요.



반짝이던 순간이 한 번뿐일 리 없지만
항상 반짝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 빛나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소신껏 해 나갈 것이다.

# 살구여성회에서 보낸 인생의 호시절

**김옥자**



살구여성회를 알게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를 위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가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 지인의 한 마디로 시작한 봉사활동

**살구여성회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 참 궁금합니다.**

20년 전쯤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딸이랑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 엄마 중 한 명이 "이 근처에 어르신들 밥 지어드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살구여성회의 무료 급식소인 '따뜻한 밥집'이었어요. 그렇게 알게 돼 봉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찬 만들기 봉사를 했어요. 100명분 반찬을 만드는데 어르신들 좋아할 만한 호박볶음이나 나물이나 청포묵처럼 대단하진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반찬을 주로 만들었죠. 제 딸도 와서 반찬 나르는 봉사에 참여했고요.

**100명분 반찬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나요?**

평소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서도 그런 봉사를 자주 하는 편이라 익숙했어요.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할 만했지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 금천구에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방학 무렵이면 아이들과 그 부모를 한 번씩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는 자리를 만들어도 자신의 어려움이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컸어요. 한번은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와 엄마를 함께 초대하는 자리였는데 엄마 한 명 얼굴이 많이 붓고 노랗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때 마음이 참 아팠는데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구여성회의 손을 잡게 할 때까지가 힘들었습니다.

**급식 봉사 외에 살구평생학교에서도 봉사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살구평생학교에서 어르신들께 중학교 수학 과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수학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게 어렵고 집중력이 꽤 필요해서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된답니다. 1년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배움에 의지를 갖고 찾아오신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아직 절실함이 없어서인지 따라오는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 '참 좋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20년 세월

**김옥자 선생님께서 살구여성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있어 살구여성회 활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살구여성회 활동은 단순히 '좋다'는 표현 외에 다른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살구여성회와 함께한 20년을 떠올리면 '아! 참 좋다 참 좋았다' 그런 생각뿐이거든요. 제게 나눔이나 봉사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굳이 특별한 의미를 찾는다면 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제가 앞장서서 살구여성회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나눔과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들으면 관심이 남달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실천도 빠르죠. 살구여성회 활동이 자

녀들에게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르친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구여성회 활동을 통해 느낀 점 혹은 앞으로 바라는 점을 여쭤볼게요.**

지역 여성을 위한 민간단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임했는데 노력한 데 비해 덜 알려져서 아쉬운 면도 다소 있습니다.

과거 금천구가 서울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살구여성회 일원 모두에게 추진력과 책임감 헌신이 절실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고 현재 활동가들과 앞으로 살구여성회에 동참하게 될 분들 모두 뜨거운 추진력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웃나눔회와 함께한 따뜻한 봉사의 추억

**한복희**



한때 살구여성회에서는 이웃나눔회라는 활동이 11년간 진행된 바 있다. 학교에 급식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그 시절 한복희 선생님은 이웃나눔회 활동의 주축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작약꽃처럼 함박웃음이 매력적인 선생님을 만나 따뜻했던 봉사활동의 추억을 되새겨보았다.

## 2,300여명 아이들의 밥상 책임지다

**선생님은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셔서 살구여성회 활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팀을 짜서 활동했고, 살구여성회에서는 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살구여성회에서 이웃나눔회 활동을 11년간 하셨어요. 이웃나눔회는 어떤 활동이었나요?**

1998년 12월부터 11년간 이어진 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급식비를 담당 교사에게 직접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어요. 혹여나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이들에게 직접 알리거나 누가 보냈는지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지원만 했습니다. 대신 송금 후에는 조용히 학교에 방문해 아이들이 문제없이 급식을 먹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했지요.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11년 동안 매년 2,3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4만원 선에서 지원해 총 1억 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네요. 이때 진행하던 이웃나눔회 활동과 후원금은 훗날 살구지역아동센터의 터를 닦는데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 모금했으니 전액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맞지요. 이웃나눔회 모금액은 2010년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 없게 되면서 후원자님들 동의하에 방과후교실 지원에 쓰였고, 이후 살구지역아동센터 후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 살구여성회의 새로운 바람 기대하며

**살구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원금으로 모든 지출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역을 다니며 후원을 부탁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장사하는 가게, 사업하는 분들 등 여기저기 찾아가 후원을 부탁했죠. 그럼 선의를 베푸는 분도 계시지만 후원이 항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 있으니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이웃나눔회 활동이 없어지면서 선생님의 살구여성회 활동도 다소 줄었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활발하게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저보다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사를 오래 해왔고 봉사로 인한 제 삶의 변화와 기쁨을 체험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봉사활동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활동하고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길 기대하지요.

**살구여성회는 선생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 여성들을 위한 단체가 생겼다는 자체로 참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단체나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구여성

회에서 활동하면서 늘 즐거웠고 자부심을 갖게 됐죠.

**마지막으로 살구여성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길 바라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금천구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선한 바람을 만들고, 본래 활동하던 사람들이 앞에서 끌어주며 금천구 여성복지의 메카로 살구여성회가 자리매김 되길 기대합니다.

# 영어선생님으로 시작된 뜻밖의 봉사 여정

**노금숙**



노금숙 회장과 살구여성회의 인연은 뜻밖에 맺어졌다.
수업을 듣겠다고 찾아온 노금숙 회장에게
오히려 살구여성회가 수업을 부탁하게 된 것.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 살구여성회와의 인연에서
노금숙 회장은 보람을 느끼고 생에 자랑스러운 순간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다.
1991년부터 긴 세월 함께 해 준 노금숙 회장,
그녀의 인생이 살구여성회를 만나 만개했던 순간들을
함께 회상해 보았다.

## 수강생으로 찾아와 선생님으로

**어떤 계기로 살구여성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경북 구미에서 살다가 금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영어 교사였어요. 당시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었지만 언젠가 다시 영어 교사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집에 신문 배달이 왔는데 신문 사이에 살구여성회를 소개하는 전단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1991년이었죠.

전단을 읽어보니 중급영어를 가르쳐준다더라고요. 영어 강사는 한신대학교 김주숙 교수로 되어있고요. 교수님이 직접 중급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니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살구여성회로 찾아갔죠. 중급영어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교재를 보여 주시는데 중학교 1학년 알파벳 가르치는 부분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였죠. 저는 대학원에서 영어교육까지 전공했는데 알파벳을 배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교사를 했던 사람이고, 중급영어라고 해서 왔는데 알파벳을 배우는 반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죠. 그때 곁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박혜영 사무국장이 "영어 교사까지 하셨다고요?"라면서 저를 붙잡은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오셨다가 수업을 하게 된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당시는 살구여성회 초창기였는데요. 수업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른들의 배움의 욕구가 굉장했죠. 수업은 한글, 영어, 수지침, 한문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나 문화센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살구여성회가 배움을 제공하는 단체로써 흔치 않은 일을 한 거죠.

## 진심으로 계획한 여성 일자리 창출

**많은 분이 선생님을 인터뷰하면 좋겠다고 추천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다들 고마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살구여성회의 명맥을 유지하느라 노력했고 어떻게든 살구평생학교와 따뜻한 밥집 두 개 사업만이라도 중단없이 이어가느라 애썼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좋은 활동가들이 살구여성회에 모여들었고 서울시여성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죠.

**살구여성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양성평등 교육과 마술 교육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시흥에 사는 지인을 통해 마술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때 교육받은 여성들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일자리를 얻어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엔 마술에 속임수가 많아서 취직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웃음).

그리고 제가 영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애쓴 경험이 있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살구여성회에서 기존에 해오던 봉사활동을 유지하느라 제가 꿈꾸던 만큼 여성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뤄내지 못한 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봉사활동 중 따뜻한 밥집의 경우 초창기에 자리잡힐 때까지 운영이 어렵기도 했고, 활동가들도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따뜻한 밥집에서 일하는데 꼬박 이틀은

매여 있어야 하고 식사시간 후에는 설거지나 소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어떻게든 이끌어 갔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든 활동이 있었음에도 살구여성회가 30년째 꿋꿋하게 이어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꼭 필요로 했던 것을 살구여성회의 여성들이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했기 때문이죠. 살구여성회에 참여한 활동가 중 몇몇은 통솔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실행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각자의 특성이 모여 시대가 원하는 바에 응답한 거라 생각합니다.

## 활동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살구여성회 활동을 중단하셨어요.**

네, 제가 한때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느라 그만뒀습니다. 모두가 남자인 구의원의 세계에서 여성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천이 잘 안 돼서 구의원을 못 했습니다. 대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일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살구여성회의 중심에서 활동도 해 보시고, 원하던 영어 교사 일도 다시 해 보셨고,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살구여성회를 응원하고 계신데요. 노금숙 회장님은 살구여성회가 어떤 단체로 남길 기대하세요?**

이제는 어르신들 식사 제공하는 급식소 역할을 교회에서 맡기도 하니까 기존 사업을 유지만 하는 대신 다양하게 뻗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아동들을 위한 공간은 꾸준히 필요하므로 살구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더 넓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금숙 선생님께 살구여성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단체 그리고 그곳에 내가 소속돼 힘을 보탤 수 있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살구여성회를 알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과대표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연극에도 심취했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참 즐겼는데 그게 살구여성회에서 다시 만개했다고 느낍니다.
사실 처음 중급영어를 배우겠다고 살구여성회를 찾아갔을 때 오히려 제게 수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했어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수업을 맡았고 봉사하고, 회장직도 맡았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생명력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저는 항상 반짝였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살구여성회를 이끌어온 선배로서
활동가들이 적은 보수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짠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이제 한발 물러나서 그저 응원의 말밖에 헤줄 수 없다는 그녀는
온 마음을 담아 활동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소중한 재능의 나눔으로 완성한 선율

## 노탐주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기를 거칠 무렵,
피아노는 특정 계층이 배울 수 있던 상징적 악기였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피아노가
어려운 시절을 거쳐온 세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선으로 피아노를 바라보는 세대의 간절함을 이해했기에
노탐주 선생님의 피아노 수업은 언제나 즐거웠고 기쁨이 흘렀다.

## 이웃의 제안으로 시작한 재능기부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게 됐나요?**

제가 마포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가 금천구로 이사 오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아이들 몇 명만 지도했어요. 그러다 한 동네 사는 친구가 살구여성회라는 단체에서 재능기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구여성회를 처음 알게 됐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과 살구여성회 활동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지도하던 것을 정리하고 3년간 살구여성회 봉사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다니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당시 살구여성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담당하셨나요?**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어르신 중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분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란 시대에는 피아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수강생분들도 참 열심히 배우셨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요(웃음). 처음에는 피아노 1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3대까지 늘릴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또 수강생들이 매번 기쁜 얼굴로 피아노를 쳤어요. 결석도 거의 없었고요. 모든 면에서 즐거웠고 생각해보면 그때가 살구여성회 활동이 참 왕성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나눔에도 책임감이 있기에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며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살구여성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의 목적은 오로지 '나눔'이잖아요. 게다가 어르신들이 피아노 학원의 문턱을 넘는 게 어려워서 돌고 돌아 찾아온 곳이 살구여성회였고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이 나눔 활동에 진심이 담기게 되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열심인지 진도를 열심히 따라잡고 체르니까지 배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구여성회에 가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도 어떤 기회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제게 타인을 도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와 사람들의 진정성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살구여성회를 통해 찾아왔던 거죠.

**살구여성회 활동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다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요?**

다시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요즘은 제가 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주말만 가르치는 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벅찬데 다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거죠. 제 나이가 곧 70세니까요.

또 책임이라는 무게도 있죠. 젊은 시절엔 제 나이 70세쯤 되면 시간이 많

아서 재능을 기부하고 사는 데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에 가까워지니 재능이란 그저 기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러 오는 분들도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건데 제가 힘들다고 대충 가르쳐도 안 되고 또 가르침을 전할 때 어떤 목표를 만들고 목표달성까지 함께 달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체력이 부족해서 다시 활동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가르침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함께 달려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삶에서 살구여성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눔이란 것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요. 저는 살구여성회를 통해 지역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웃과 나눈다는 게 타인을 위해 재능을 쓸 수 있다는 게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실감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살구여성회 활동 이후로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살구를 통해 선물받았습니다.



#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활동가

## 서은주



세상이 바뀔 때는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 하나가 바꿀 수도 있지만
고루 퍼질 수 있는 제도의 힘이 행사될 때
변화의 확실한 흐름이 잡힌다.
금천생태포럼에서 활동 중인 서은주 선생님은
그 흐름을 일찍이 파악했다.
살구여성회의 다양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 문해 교육 제도화의 주역

**선생님은 살구여성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교육 부문에서 봉사를 하던 중 당시 살구여성회 노금숙 회장님이 제게 살구여성회 활동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살구여성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무국장이 되면서 시작한 일로 2006년도에 교육부 교육진흥원 사업으로 문해 학교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문해 교육을 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사업비를 받아서 제대로 진행했어요. 그 이듬해부터 살구여성회가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시작했고 금천구청에서도 문해 교육을 그때부터 조금 알게 된 거죠. 그 당시 문해 교육을 교육부 사업비 받아서 진행했던 건 아마 살구여성회가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문해 교육 외에도 살구여성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네, 문해 교육 외에도 여성들 방과 후 일자리 직업 과정도 만들었어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의 지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술 지도사 과정을 열었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자리 관련 사업, 생태체험 지도사 과정 등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선구자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네요.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교육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금천구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활동인가요?**

제가 18년 가까이 금천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금천구에도 미술관이 있어요'라는 지도 만들기 작업이 기억이 납니다. 금천구에는 박물관도 없고 관광 안내를 위한 확실한 지도도 없었죠. 저희는 구청에서 지원받은 500만 원으로 학생들 교육하고 청소년 마을기자단을 만들어 관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금천구에 역사적인 것은 호압사, 향교, 순흥안씨, 한우물 정도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표상으로 조각해 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대충 돈 받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조각품 하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 모든 활동의 중심은 환경과 사람

**선생님은 현재 금천생태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생태·환경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다들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보는 것만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장학습 오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이 대세잖아요. 제가 과격하고 말은 좀 폭력적이고 걸러짐 없이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 보니까 품격이 없어 보여서 그런 품격을 키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와 나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생태와 환경을 이해하고 건강한 마인드를 훈련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놀이 명상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주로 생태·환경 교육 부문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어떠한 부분이 변화하기를 바라시나요?**

금천생태포럼에서 활동해보니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흙을 밟지 않고 사는 세대가 됐어요. 또 대부분의 아이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흙을 밟아본 경험 없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화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고 배우는 터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자연을 알게 하는 것이 관찰력도 있고 집중력도 키우고 자연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금하마을 현장지원센터에 계시는데 이곳에서의 활동과 또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하마을은 금천구에 속하지만 광명시에 가까운 지역이라 금천구에서도 다소 소외된 지역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의 돌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 얻은 게 더 많았던 13년간의 재능기부

**박동완**



살구여성회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계신 박동완 선생님!
그는 커다란 가방에 매일 공구를 넣고 다니며
필요한 수리와 공사를 척척 해낸다.
덕분에 살구여성회 활동이 걸림돌 없이 술술 흘러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박동완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더 빨리 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훈훈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재능이 나눔 되는 기쁨

**선생님은 어떻게 살구여성회와 인연이 시작됐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살구여성회에 대해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2007년이었고 제가 40대 중반이었죠. 그때부터 살구여성회에 수리나 공사가 필요할 때 기술 봉사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살구여성회를 알았더라면 도와드릴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 아쉬운 면도 있지요.

**선생님은 기술이라는 재능으로 봉사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기술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제가 봉사활동을 다녀보니까 저처럼 무언가 고치고 수리하는 기술로 봉사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저는 매일 가방에 공구 일체를 넣고 다녀요. 제가 도착한 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려고요. 지금도 업무를 쉬는 날이 걸리면 살구여성회 쪽은 무조건 가요.

**활동가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공사를 선생님이 처리해주신 적도 있었죠.**

독산동 남문시장 근처에 따뜻한 밥집을 세울 때 박양희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부르시기에 가봤더니 이곳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셔서 무료 급식소를 1주일 안에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처 철물점에 가서 재료를 사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따뜻한 밥집이랑 살구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할 때도 전기, 계량기 등을 다 분리하는 공사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혼자 맡아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때 곁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 있어 위험 하거든요. 어쨌든 다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공사인데 안전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살구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제가 공구 들고 봉사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어요. 공구가 무겁기도 하고 잘못 만지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살구여성회에서 봉사할 때면 특히 신경이 더 쓰이죠.

## 나눔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

**오랜 세월 선생님이 살구여성회에 크게 이바지해주신 게 분명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 맡았을 뿐입니다. 나사 하나 박는 역할 불편한 것 치워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있다면 하나 들려주세요.**

어느 날 살구여성회 사무실에 방문해보니 좁은 사무실에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칸막이 때문에 사무실을 불편하게 쓰고 있었어요. 칸막이를 없애려고 알아봤더니 견적이 꽤 비쌌던 모양입니다. 제게 칸막이를 없애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한 시간만 비워달라고 한 뒤에 공구를 사용해 칸막이를 전부 없앴어요. 그걸 혼자 다 없애버리니 활동가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동안 칸막이 하나 없애지 못해서 애가 끓었던 것을 제가 해결하니 신기했나 봅니다. 활동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런데 그런 봉사가 조금씩 늘다 보니 제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취직하려고 준비 중인데 봉사를 10년 넘게 했다고 하니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고요. 무언가 기대하고 시작한 봉사는 아

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좋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살구여성회에서의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제 아내가 봉사 다니는 것을 많이 반대했어요. 쉬는 날이면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쳐주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웃음)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있으니 왜 봉사 안 가냐고 묻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봉사하는 저를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봉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기술적인 면으로 베푼 것보다 마음가짐에 있어 얻는 게 더 많았던 살구여성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사업 힘차게 추진한 리더십의 여정

**박정숙**



살구여성회 내에서 박정숙 선생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알려져 있다. 웃음이 많고
누구에게나 살갑게 대하면서도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빠른 실행과 열정을 보여준 박정숙 선생님.
인터뷰를 기회로 박정숙 선생님과 마주 앉아
살구여성회와 동행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

**어떻게 살구여성회 활동을 시작했나요?**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천 한우물 생협에서 활동했는데요. 당시 생협과 살구여성회가 연계사업을 많이 할 때라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리고 2007년에는 살구여성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살구여성회 활동 중 빨래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회장님이 금천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빨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탁기나 세탁할 공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5월부터 빨래방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지원금으로 세탁기를 두 대 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집마다 방문해 빨래를 실어온 다음 세탁기를 돌리고 말리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살구여성회 사무실이 시흥 본동에 있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생성된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당시 빨래방 사업과 경로 무료급식소, 살구 평생 학교를 통한 문해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활성화된 때였어요. 기존에는 후원금으로 아담하게 운영되던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자원봉사자도 크게 늘었고요.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물품을 배분하고 행사를 여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당시 무료급식소는 매일 100여 명의 인원이 몰릴 정도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했지만, 몸이 고단한 일도 거르지 않고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좀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일찍 출근해서 락스 뿌려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다른 활동가들이 락스 냄새를 싫어했을지도 모르지만(웃음), 저는 각자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를테면 살구여성회 안에서도 누구는 후원금 모집을 잘하고, 누군가는 급식소에서 음식을 잘하는 것처럼 저는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저를 실행력이 좋다고 기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실천하는 행동력은 살구의 재산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지만, 살구여성회 활동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구여성회 사무실이나 따뜻한 밥집도 그렇고 환경이 워낙 열악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구입해서 살구여성회 관련 사업이 모두 진행되는 센터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사실 살구평생학교, 따뜻한 밥집, 살구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의 임대료가 합치면 꽤 많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하면서 각 사업이 한곳에서 진행되면 분명 장점이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러 다닌 적도 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또 살구여성회가 오랜 역사에 비해 덜 알려진 점과 활동가들의 세대교체가 느렸던 것도 아쉽죠.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젊은 살구여성회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노력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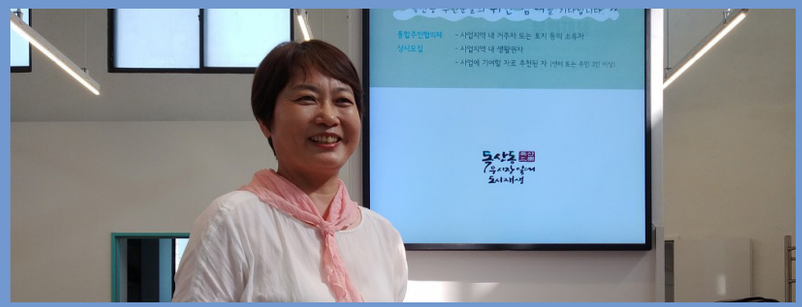
이제야 듭니다. 지금이라도 젊은 활동가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살구여성회와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구여성회가 어떤 단체로 남길 기대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끈기 있게 추진해서 좋은 결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살구여성회의 장점은 일단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실천한다는 겁니다. 비록 활동가들의 선의가 세상에 덜 알려져 있더라도 꾸준히 봉사하고 좋은 뜻을 행사하면 그게 분명 살구여성회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이바지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가로 성장

## 나정임



누군가에게는 살구여성회 활동이 새로운 진로를 향한
징검다리가 되기도 한다.
바로 나정임 전 사무국장의 이야기다.
나 사무국장은 한때 살구여성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과거 살구여성회와의 시간을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활약할 수 있었던
발판으로 살구여성회를 회상했다.

## 일인다역 사무국장의 탄생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2008년부터 4년간 살구여성회 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요. 어떻게 살구여성회와 인연이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끔 나 자신이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육아 외에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면서 생기 있게 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협의 조합원이자 활동가를 시작했고 2007년 '금천구 사회복지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여성 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살구여성회가 여성 가장들의 자조 모임을 맡았거든요. 그때 인연이 시작됐고, 2008년에는 살구여성회의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살구여성회 사무국장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당시 살구여성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원래 계시던 회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옴과 동시에 회장 역할과 사무국 일을 모두 맡아야 했고, 마침 살구지역아동센터까지 개설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무료 급식소와 살구평생학교도 챙겨야했고 그렇게 바쁜 날이 2011년 12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일인다역을 하느라 정말 바빴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하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 살구여성회가 있는 무지개 상가 4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힘들었고, 남문시장 근처로 이사해 급식소 자리를 정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당시 금천구 안에 무료급식소가 여럿 있었는데 독산동 쪽에만 없었어요. 아동들을 돌봐줄 지역아동센터도 없었고요. 그래서 독산동으로 자리를 정하고, 이사를 하고,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 활동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살구여성회

**힘든 경험이었지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데 살구여성회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살구여성회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 하는 일의 자양분이 됐죠. 제가 살구여성회 활동을 마치고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 마을사업 전문가 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8년 지금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오게 됐거든요. 이곳에서 주민들의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살구여성회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살구여성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살구여성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 나와 내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살구여성회 활동을 하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도 갖게 됐고요. 공익을 위한 활동가로 살아가는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구여성회에 계시지 않지만, 만약 다시 기회가 된다면 살구여성회에서 시도하고픈 활동이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찾아가는 어른 공부방'을 다시 열고 싶어요. 살구평생학교를 열었을 때 시간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학습지 교사처럼 찾아가자.'라는 아이디

어로 '찾아가는 어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업하던 어르신 중 한 분은 "내 손으로 내 이름 한 번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배움에 열의가 있지만,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지가 너무 어려워 얼마 못 가 접었어요. 저는 그 사업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구여성회가 어떤 단체로 남길 기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여전히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 해도 노숙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의 소득이 높아지고 과거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된다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살구여성회와 같은 단체가 오래 활동해야 하고, 탄력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사 길을 열어준 놀이터 지킴이

**류희춘**




살구여성회에서는 지역 여성을 위한 사업 외에도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손길이 많이 필요하면서 활동가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업은
주로 아동 복지사업이었다.
류희춘 사회복지사는 살구여성회의 놀이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고,
사회복지사 실습도 살구여성회에서 마칠 수 있었다.

## 공평하고 따뜻한 돌봄

**살구여성회에서 놀이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었나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놀이도 마냥 계획 없이 노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서 다양한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즐겁지만 여러 모로 고민할 게 많은 일이라 짐작이 갑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면에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면 진땀이 났죠. 언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 아이가 있었는데, 놀이터에 오면 가장 고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곤 했어요. 학교에서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아이들 곁에서 잘 지켜봐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 아무리 어른이라도 타인을 괴롭히는 아이를 좋아하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애정을 다르게 주면 훗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보듬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놀이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 가방에서 지갑을 빼간 적이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 한 일이었죠. 도둑질은 나쁜 짓이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돌봄에서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간식을 먹자고 타일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고팠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 집에 왔는데 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아이였어요. 잠깐 만나자고 하길래 나가봤더니 아이가 "제가 선생님 지갑에서 3만 원 훔쳤어요."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왜 훔쳤냐고 물었더니 배고파서 훔쳤다는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호적상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 현실이 싫었던 아이는 말썽을 부렸던 거죠. 제 지갑에서 훔친 3만 원은 할머니께 드렸대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건 분명 나쁜 짓이지만 아이의 외로움과 힘겨운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 사회복지사 길 열어준 고마운 놀이터 지킴이

**그 아이도 선생님에게도 참 가슴 아픈 경험이었네요. 그런 경험이 사회복지사에 도전한 계기가 됐나요?**

그렇죠. 당시 제가 한 건 돈을 훔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배고플 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놀아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훔치는 버릇을 고치더라고요. 그저 외로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가진 것을 나눴을 뿐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도전했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도 살구여성회에서 했죠.

**그렇다면 살구여성회 활동이 선생님의 삶에 변화를 준 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구여성회 활동 전에는 제 자식만 보였어요. 내 자녀만 소중하고, 자녀를 키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죠. 사실 놀이터 사업에 참여한 계기도 제 딸들에게 친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 진로를 찾게 됐어요.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되고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제 딸들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구여성회 활동이 선생님 인생에 가장 반짝였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놀이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으니 인생에 반짝였던 순간이 맞지요. 그래서 살구여성회와 관련된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복지를 꿈꾸며

## 이윤경




긴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과 달리 뽀송뽀송한 온기가
사방을 덮어주는 곳이 있었다. 바로 살구지역아동센터다.
인터뷰 자리에서 만난 이윤경
살구지역아동센터장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격,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장래희망 등을 줄줄이 욀 정도로
따뜻한 애정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이윤경 센터장의 관심과 열정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친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티끌 없이 자랄 수 있었던 배경 아니었을까?

## 현재를 파악하고 내일을 계획할 것

**센터장님은 어떻게 살구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이 시작됐나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배운 바를 활용해 아동복지를 실천할 곳을 찾았어요. 그때 살구지역아동센터를 만났죠. 사실 그전에는 살구여성회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금천구에 오래된 복지 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살구지역아동센터에 오셔서 활동하면서 센터장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나요?**

제가 오기 전에 계시던 센터장님이 이곳의 체계를 잡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하시며 제가 업무를 인수받아 여러 활동을 했지요.

하지만 활동하면서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 특히 복지 분야의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정말 끝없이 힘들거든요. 사람들과 밀접한 자리에서 하는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언가 많이 이뤄내고 싶다는 욕심을 내자면 그 역시 끝이 없지요.

그래서 살구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도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되,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얘기해요. 거창한 사업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변화와 발전을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부터 센터를 찾던 아이들이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화가 편하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 입장인데 오히려 위로와 이해를 받기도 한답니다.

## 공부보다 인성,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

**살구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도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계청과 구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면 독산동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센터에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센터의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에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좌충우돌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삶에 살구지역아동센터가 변화를 준 부분도 있나요?**

처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계기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아이가 바뀌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좋아질 거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소속돼 있는 가족공동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가족공동체 관련 연구를 했고, 살구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또 살구지역아동센터에 오기 전 상담, 어린이집, 통역안내원 등의 직업도 가졌는데 당시의 경험이 지금 살구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살구지역아동센터를 맡고 계시지만 여기서 더 발전시켜 아동복지 쪽에서 꿈꾸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육원을 세우는 게 오랜 꿈이었습니다. 현재는 살구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든 대안학교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건 아이들과 신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이네요.

**그 꿈이 머지않아 이뤄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살구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살구여성회에 기대하시는 부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살구여성회 회장님이 입버릇처럼 "하나의 건물에 따뜻한 밥집, 살구평생학교, 살구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기대합니다. 누구는 돕기만 하고, 누구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구여성회 안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복지가 실천되는 곳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 봉사 활동을 즐기는 세 명의 이웃사촌

**정순금 • 나칠훈 • 성연모**



긴 장마가 지나간 늦여름, 뽀송뽀송한 햇살처럼 웃는
나이 든 소녀들을 만났다.
마치 자매인 듯 웃는 눈매가 닮은 세 분은 살구여성회의
정순금 · 성연모 · 나칠훈 선생님이다.
세 분은 한동네에 살고 있어서
당연한 일상처럼 함께 있는 때가 많다고 한다.
살구여성회에서도 함께 봉사하며
곁의 사람들까지도 웃음 짓게 만드는
정순금 · 나칠훈 · 성연모 선생님을 만나
이들의 행복한 봉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자매처럼 닮은 세 명의 이웃사촌

**세 분은 자매처럼 다정해 보이십니다. 어떤 사이인지 여쭤도 될까요?**

정순금 : 우리 셋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처음에는 저 혼자 '따뜻한 밥집'에 봉사 활동을 다녔는데 나중엔 셋이 함께 다니게 됐죠. 셋이 하니 저도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됐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셋이 함께 살구여성회에 봉사 활동을 다닌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봉사 활동이 주는 행복이 분명 있지만 10년씩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연모 :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봉사 활동을 나오면 어르신들이 저희 시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고, 집에 돌아오면 시아버지에게도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정순금 : 저는 봉사 활동에 다녀오면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다닌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 중에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성연모 : 따뜻한 밥집에서 음식 나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양말을 갖고 오셔서 제 주머니에 넣어 주신 적이 있고, 사탕을 넣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음식을 대접받는 어르신인데도 같이 나눠 먹고 싶다면서 반찬을 갖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만큼 정 많은 어르신을 많이 뵈었죠. 그러다 한 번씩 얼굴이 안 보여서 알아보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정순금 : 그런 속상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도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하는 활동을 오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나칠훈 :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많이 못 뵈었어요. 얼굴 잊어버릴 정도예요(웃음).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화돼서 어르신들 건강한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세 분 정말 즐겁게 봉사 활동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급식소 봉사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연모 : 글쎄요, 이 순간들이 즐겁다는 생각이 커서 힘들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만약 봉사 활동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봉사가 아닌 일이 돼 버리잖아요.

정순금 :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느낀 적은 아직 없어요.

##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오늘

**세 분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칠훈 : 정말 단순하게 '너무 좋다'고 말할 수밖에요. 물론 집안일 하면서 봉사 다니는 게 피곤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막상 오면 피곤함은 말끔히 사라져요.

정순금 : 셋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 활동을 통해 세 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생겼나요?**

나칠훈 :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제 기쁨으로 봉사를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요. 가족들도 제가 꾸준히 봉사하는 것을 응원해줍니다.

성연모 : 지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20년 넘게 모셨거든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동안 못 해 드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봉사 활동 나와서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구여성회 활동 외에 다른 봉사 활동도 다니고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합니다. 봉사 활동이 제 삶에 활력을 준다고 느낍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순간을 언제로 기억하세요?**

성연모 : 저는 딸 하나 키우며 사는 게 전부였는데,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제 인생이 많이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넓었구나,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반짝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칠훈 : 저는 딸들 결혼시키고 나니 왠지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됐고, 저의 인생 후반전이 시작됐다고 느꼈죠.

정순금 : 애들 키울 때는 살기 바빠서 타인을 돕는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 봉사 활동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지금이 반짝이는 인생이겠죠.

**세 분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아직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인지 여쭤볼게요.**

나칠훈 : 꿈이라면 오로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끝까지 봉사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성연모 :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느껴요.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정순금 : 저도 봉사하며 사는 현재에 만족하거든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어르신들 위해 봉사하고 살구여성회 활동가들과 하하 호호 웃으며 지내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한글과 함께 배운 용기와 연대

박은실



십 년 넘게 살구여성회의 터전을 다져온 박은실 이사.
이제 와 돌이켜보면
위태로울 듯하다가도 우뚝 서고, 고단하다고 느낄 무렵엔
어디선가 꽃망울이 터지는
주기가 순환하며 살구여성회가 성장해왔다고 박 이사는 회상한다.
미처 한글을 배우지 못한 여성들의 글눈을 틔웠던
그녀의 저력은 아마도 우직한 책임감일 것이다.
마치 여린 과육 속 단단한 씨앗이 자리 잡은 살구처럼 말이다.

## 묵묵한 책임감으로 성장한 30년

**살구여성회가 2021년이면 30주년입니다. 30년 세월 속 선생님이 동행한 기간이 무려 십 년이 넘습니다. 십 년 넘게 봉사하며 느낀 바가 많으실 텐데요. 긴 세월 살구여성회가 지속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잡초 같은 생명력이라고나 할까요(웃음)?

사실 십 년 가까이 봉사하면서 고비라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30년 전 살구여성회가 설립됐을 무렵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구성원마다 책임과 사명이 확고해야만 단체가 운영될 수 있었죠. 또 그만큼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 사람 간의 온기가 살구여성회를 지속하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살구여성회는 '복지'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할 무렵 금천구에서 시작된 지역 여성단체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여전히 살구여성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감과 사명이 강하고 주어진 바를 묵묵히 맡아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구여성회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이력과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봉사하고 지역 안에서 도란도란 살아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데 익숙한 시대의 변화와 달리 우리들의 묵묵한 봉사성향 때문에 덜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글눈을 틔우고, 틔워주는 행복

**살구평생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글반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 한글반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편을 잡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아도 사는 방식이나 환경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한글반을 시작할 무렵 수업을 들으러 오셨던 어르신 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노곤한 상태로 오는 분도 계시고,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상황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알려드려도 받아들이는 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만으로 수업을 끌어가기보다는 수강생 한 분 한 분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글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지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글을 배우기 한참 전 구로공단에서 열린 가요제에 참가했는데 2등을 한 거예요. 그때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그분 노래를 듣고는 찾아오셔서 혹시 가수할 마음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때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는데, 가사를 못 읽고 글 읽을 일이 많아질까 봐 덜컥 겁이 나셨나 봐요. 결국, 한글을 모른다고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셨대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우러 살구여성회를 찾아오셨네요.**

그렇죠. 늦게나마 글을 배운다고 하니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많이 응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살구여성회를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늦게나마 배움을 시작하신 데 반가움

이 동시에 들었죠. 지금도 스승의 날이면 제게 "선생님!"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운 부분에 눈을 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살구평생학교의 문해교육을 통해 학력인증을 받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은 매해 평균 4명씩 졸업장을 땁니다. 졸업장이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석 일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업에 참석하고 시험까지 통과하신 분들이 해마다 4분 정도 계시고, 그 외에 수업을 듣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늦게나마 학업을 시작해 결실을 맺으려는 분들이 많기에 저 역시 힘든 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현재 살구평생학교에는 한글반을 비롯해 컴퓨터반, 영어반, 서예·채색화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더욱 학교를 확장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주로 살구평생학교의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젊은 여성과 장애 여성도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연령 폭이 넓어지고 학교의 문턱이 편안해졌다는 데서 이미 의미 있는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나와 살구, 그 반짝이는 연대에 대하여

**폭넓게 학생을 맞이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박 이사님의 삶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족분들은 선생님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은 저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제 남편은 어디서 좋은 음식이나 간식거리가 생기면 학생들과 나눠 먹으라고 넉넉히 챙겨주곤 합니다. 그런 소소한 마음이 제겐 큰 응원이죠.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이요. 10년 가까이 살구여성회에 몸담은 내내 저는 매일 찾아오는 오늘이 항상 반짝인다고 느꼈습니다. 먼 옛날 공부란 남성의 것, 살림은 여성의 것으로 강요당한 시절이 있었죠. '여자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에 쓰나.'와 같이 낡은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늦게나마 살구여성회를 찾아오실 때, 그리고 그분들을 맞이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할 때 저와 수강생들은 함께 행복했고 함께 반짝였습니다.

**노력하고 봉사한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제가 존경스럽습니다(웃음). 그래야 자신감 있게 수업하고, 수강생분들께 봉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를 존경하려고요.

**앞으로 살구여성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살구여성회에 보다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욱 많은 분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름은 여성회지만 남성분들도 환영합니다(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수강생분들의 인식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라도 공부를 한다는 건 응원받아야 할 멋진 일인데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더 당당해지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글을 배운 수강생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쓸 때 긴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지금

보다 더 당당하게, 더 뿌듯하게,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성취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살구여성회의 영향을 받은 타 지역 단체들도 무수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살구여성회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감회를 여쭤볼게요.**

살구나무 하나에서 씨앗이 퍼지고 또 퍼지며 좋은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지역단체가 30년을 지속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념비적이고, 살구여성회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렸다는 데 만족합니다. 신선한 변화를 만들되 지금처럼 행복을 영그는 살구여성회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를 마치고도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포근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녀와 이야기를 마치며 살구여성회가 배움의 문턱을 넘은
이들에게 진정 전하고 싶었던 건 한글과 더불어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와 따뜻한 연대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봉사활동으로 깨우친 인생의 가치

## 주혜영



지금도 살구여성회의 장점은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나가 결실을 맺는 것이예요
라고 말하는 주혜영 회장은 금천구에 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살구여성회를 아꼈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 ‘지역’은 작은 잣대일 뿐

**주혜영 회장님은 금천구 주민이 아니지만 살구여성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함께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김주숙 교수님이 살구여성회에서 함께 활동하자고 권유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금천구에 살지 않아서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웃에 봉사하는 데 거주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활동을 시작했죠. 이왕 용기 내서 시작한 봉사활동이니 내가 이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했어요.

**살구여성회 회장으로 계실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놀이터 사업인 ‘애들아 놀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놀이터 사업은 아이들의 만족감 못지않게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맞벌이하거나 돌봄이 어려운 부모는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구여성회의 놀이터에 보내면 안심이 되고 또 새로운 놀이문화를 배워오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으면 못 놀아요. 우리 어릴 때는 숲이나 강가만 가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게 장난감이었는데 말입니다. 장난감을 손에 쥐여주지 않아도 놀 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역할에 살구지역아동센터가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놀이터 사업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는 결과로 예쁜 매듭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 살구여성회를 통해 깨우친 연대의 아름다움

**살구여성회 활동에 있어 놀이터 사업 외에도 집중하셨던 부분이나 꼭 해보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터 사업 외에도 부모 교육, 봉사자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바자회를 틈틈이 열어 주변 이웃들과 연결하는 자리도 만들었고요. 맡은 사업들은 열심히 진행했지만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마저 도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기점으로 발달이 조금 늦거나 또래들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결국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하는 건 벅찬 일이죠. 그래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돼서 아이디어에서 그쳤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사업으로 추진해도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구여성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도 하나 들려주세요.**

살구여성회 활동가들과 알아가고 지역 공동체의 여성들과 워크숍을 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활동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크게 보자면 활동의 목표가 닮은 여성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양식으로 남아있죠.

**살구여성회는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해 학교에 출강하고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처음엔 교육하는 봉사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가 살구여성회 활동을 통해 재능과 나눔에 대해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웃과 연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 생에 큰 의미였습니다. 살구여성회 일을 하며 인생의 가치를 많이 배웠다고 느낍니다.



# 밥 짓는 냄새와 함께한 열정의 봉사

## 박양희



살구여성회의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한 밥집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탁을 차린다.
정해진 시간이면 생계가 힘겨운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집에 찾아와
한 끼를 드신다.
그 한 끼는 어려운 이들에게 감동의 밥 한술이자
끈을 놓지 않은 희망이고
살구여성회에게는 오늘도 이웃과 더불어 살았다는
보람찬 시간의 증명이다.
이 따뜻한 밥집을 긴 세월 무너짐 없이 일궈온 데 대해
박양희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다.

## 시흥에서 독산으로, 밥집의 이사

**따뜻한 밥집이 시흥에 위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식탁을 책임져오셨습니다.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구여성회에서 1997년 경로 무료급식소인 '따뜻한 밥집'을 열었고 저는 2007년부터 함께 해서 1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 '따뜻한 밥집'은 시흥에 있었고 10년쯤 후에 독산3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흥에서 독산동으로 따뜻한 밥집을 옮기게 됐나요?**

당시 시흥에는 무료급식소가 11곳이나 있었습니다. 살구여성회의 따뜻한 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첩에 요일별로 밥을 주는 기관을 메모하고 그 요일에 맞춰 무료급식을 드시러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기초적인 생계가 어려운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정황을 알아가면서 당시 금천구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었던 독산동에 무료급식소를 열자고 의견을 모아 2009년 이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집을 독산동으로 옮기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막막했죠. 당시 이사를 앞두고 독산동의 집마다 방문하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생긴다면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여쭙는 조사였는데 조사 중에 만난 주민 한 분이 "여러 번 조사만 하고 급식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이곳 주민들에겐 생계의 곤란함이나 상처가 꽤 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마치고 즉시 무료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독산동에서 따뜻한 밥집을 열 때 주민센터에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40~50분의 명단을 받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명단에 계신 분들이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김주숙 교수님을 비롯해 활동가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파지 줍는 분들이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100명 넘게 오셨어요. 주민센터가 파악한 인원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훨씬 많았던 거죠.

**당시 어르신들 외에 아이들의 식사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동 따뜻한 밥집이 남문시장 근처였거든요.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다 보니 근처 놀이터에서 배고픈 상태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끝내시면 아이들을 불러와 밥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살구지역아동센터가 출발하게 되었죠.

##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강한 식단

**많은 인원의 식사를 챙긴 따뜻한 밥집인데요.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오긴 하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공간 임대료 각종 요금 등 비용은 살구여성회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버거워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따뜻한 밥집은 구청 보조금이 없을 때도 운영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이 들었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며 꿋꿋하게 버티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후원자님들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살구여성회가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것은 지역에 계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의 삶에서 빈곤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었고 배고픈 아이들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모여서 따뜻한 밥집이 운영됐기에 저는 밥 한 끼가 단순한 밥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집의 메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건강한 식사를 위해 영양사 선생님을 고용하고 싶었는데 형편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짠 식단처럼 5대 영양소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잘 짜인 식단이 많이 공개돼 있어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식단은 정성 들여 만든 육수를 기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고 맛이 좋다는 평가가 늘 자자하답니다.

**따뜻한 밥집이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따뜻한 밥집에 직접 오셔서 식사하실 순 없지만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3일 치의 식사를 포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밥은 부피가 꽤 있는 편이라 식사 오시는 어르신들께 각자 밥을 담아갈 밥통 하나씩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 통을 준비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얼굴을 뵙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13년간 살구여성회에 몸담고 계시고, 또 지금은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구여성회 활동가 중 박성숙 선생님 아들 돌잔치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2007년이었는데 아들 돌잔치를 따뜻한 밥집에서 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떡이나 잡채 등 음식을 준비해 와서 어르신들과 나눠 먹으며 잔치를 치른 거지요.

그때 박성숙 선생님이 돌잔치를 치르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다짐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를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칭찬해 주겠습니다' 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분들이 크게 손뼉 치며 축하해줬던 광경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정말 뜻깊은 돌잔치였네요. 그밖에도 살구여성회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낀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원자님이 사정상 후원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후원을 중단하면 새로 후원자님이 꼭 생기더라고요. 또 따뜻한 밥집에 식사하러 오는 어르신 중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간혹 지폐를 손에 쥐여주고 가실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값진 후원이죠. 그런 경험이 쌓일 때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살구여성회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게요.**

저는 가정에서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세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꼭 제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만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요.

살구여성회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배움의 길이 막힌 이들의 앞을 틔워주는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겠죠. 그 역할은 세상에 꼭 필요하고 살구여성회가 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에게 살구여성회는 이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곳 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살구여성회를 힘껏 이끌어온 사람
따뜻한 밥집에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건
내 가족의 식탁을 차리듯 13년간 이웃의 식탁을
차린 그녀의 두둑한 책임감 덕분 아닐까 한다.

#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박성숙



우리는 세상을 빌렸을 뿐이에요.
부모나 자식도 세상이 잠시 내게 빌려준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살구여성회와는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우리 딸이 지금 스물한 살인데, 그 애가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16년 정도 됐네요. 제가 딸을 낳고 산후풍이 와서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막내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때 동네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신부님이 주일마다 오시고 독산1동 자매님들도 오시고 그랬어요. 자매님들 보시기에 제가 좀 안돼 보였나 봐요. 새댁이 자기 몸도 안 좋은데, 치매에 풍까지 온 시부모님 모시지, 아기 있지,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김치도 가져오시고 맨날 뭐만 있으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분들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세상을 빌렸을 뿐이에요. 부모나 자식도 세상이 잠시 내게 빌려준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엔 성당에 보답해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아니다. 조금 크게, 금천구 어르신들한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르신들께 나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를 소개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살구여성회예요.' 하는데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죠.

**왜 꼭 어르신을 돕는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긴 했지만, 밥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 거예요.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아서 보육원 봉사도 같이 했죠. 그래서 평일에는 어르신께 가고, 주말에는 우리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월요일에 보내고 그랬죠.



## 따뜻한 밥집에서 둘째 아이 돌잔치를

**처음에 어떤 활동부터 하셨어요?**

따뜻한 밥집이요. 금천구청이 사거리에 있을 때, 구청 뒤 산부인과 건물 2층에 살구여성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부터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 100명, 120명 됐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하는 일을 도왔는데, 진짜 정신없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 돌잔치도 거기서 했어요. 잔치라야 따뜻한 밥에 미역국, 과일, 반찬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매니페스토 선언서를 낭독했죠.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요. 그때 민요 선생님 오셔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같이 봉사하던 선생님이 플루트도 연주해 주셔서 돌잔치가 작은 음악회가 됐어요.

**밥집 봉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감사한 일도 많았을 텐데요.**

어제까지 식사 잘하시고 가셨는데, 갑자기 편찮으시다,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 들을 때, 힘들죠. 뽀로로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99세로 연세가 제일 많으셨는데 항상 뽀로로 모자를 쓰고 오셔서 밥 내놓으라고 막 호통을 치세요. 어쨌든 밥집 대장이셨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한 번은 너무 많이 드셔서 119에 실려 가기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밥집에 얘깃거리가 없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야 많죠. 그래도 아들 잘 큰 게 제일 감사하죠. 어르신들 기도해주신 덕분인지 그냥 잘 자랐어요. 아들한테 두고두고 얘기하거든요. 밥집 어르신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신 덕인 줄 알라고요.

**돌잔치를 했던 그 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열다섯 살이에요. 하이라이트 중 2에요. 꿈이 파일럿이래요. 사랑스럽기는 한데 공부는 아주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 같아요. '내 소원이 너 공부하는 모습 보는 거다' 그러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 이게 벌써 10년이에요. 그러면서 제 탓을 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탁을 잘 못 해서 그렇다고. '엄마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했어야지, 어떻게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 그래!' 그런다니까요.

**살구여성회 활동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리만족? 왜냐면 옛날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신다고 했어도 밥도 잘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께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것처럼 그런 대리만족.

##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필요해

**오랜 시간 활동하신 입장에서 앞으로 살구여성회가 이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안정된 공간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내년이면 살구여성회가 30년이에요. 금천구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관내 많은 단체 활동가들이 살구를 거쳐 갔어요. 그 정도면 안정도 되고, 어디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데, 후원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항상 월세에 관리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해요. 든든한 뭔가가 있어야 봉사자들도 마음 편하게 이 일을 하는데, 맨날 하루살이처럼 계약만기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생활이 어려운 개개인의 복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같은 단체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단체들이 일어설 수 있게요.

**살구여성회가 가진 현재의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사회도 소집하고, 함께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사업도 고민하고 있고, 저는 단체 명칭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성뿐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게 이제 살구회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 봉사하는 시간, 잊었던 웃음을 되찾다

## 김지순



어려서부터 개구쟁이로 소문난 김지순 선생님은
시골 마을에서 나무를 타고 매달리며 놀기를 즐겼다고 한다.
그렇게 활동적인 기질이 몸에 베어서인지
숲 밧줄놀이 강사와 실버체조 강사로 활약한 김지순.
매사에 운동하고 가르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호탕함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 살구를 만나 바깥세상으로 걸어 나오다

**살구여성회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나요?**

딸아이 초등학교 시절, 학부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부모회 회장님 소개로 살구여성회 '따뜻한 밥집'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만들기, 배식, 뒷정리, 행사 도움 등의 봉사를 했고 지금은 살구여성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따뜻한 밥집에서 꽤 오래 봉사를 하셨고,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따뜻한 밥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대략 40여 분의 어르신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하러 오십니다. 봉사자들은 회장님을 주축으로 하루 2~3명씩 나와 봉사를 하지요. 아무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드린다지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궂은 날씨에 외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제 따뜻한 밥집이 자리를 잡았구나 싶습니다.

**살구여성회에서 봉사하기 이전에도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시험관시술로 딸을 낳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부터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셈이죠. 결혼하고 긴 시간 아이가 안 생겨서 바깥 활동을 자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됐을 때부터 바깥세상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좋은 기회에 살구여성회에서 봉사 활동도 시작했지요.



**살구여성회에서 무료 경로급식소 봉사 외에 실버체조 수업도 맡고 계세요.**

제가 원래는 숲 밧줄놀이 강사였어요. 숲 밧줄놀이 왠지 낯선 이름이죠? 숲 밧줄놀이는 숲에 가서 밧줄을 설치한 후 아이들과 노는 활동인데, 생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은주 선생님의 소개로 2017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강사로 활동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난 개구쟁이라 매일같이 나무에 오르고 뛰고 매달리며 놀았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제 적성이었는지 숲 밧줄놀이 강사로 정말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에 올라가서 밧줄을 묶고 풀고 옮기는 작업이 힘에 부치더군요. 그래서 산에 오르지 않지만, 활동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실버체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분야를 옮겼죠. 그래서 올해부터 살구여성회에서 실버체조 수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직 수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들을 뵙고 건강한 수업시간 갖고 싶습니다.

## 남을 위한 봉사, 나를 위한 봉사

**봉사의 종류를 넓혀가며 살구여성회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사님이 꾸준히 봉사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살구여성회에서 봉사하는 원동력은 어르신들과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제 가족 같아요. 봉사하기 전에는 제가 동네 분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얼굴을 익히고 종종 고맙다는 인사도 듣게 되니 힘이 나서 봉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구여성회 활동이 이사님의 삶에도 변화를 준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딸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20년 가까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살구여성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숲 밧줄놀이, 실버체조 강사가 되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어요. 활력이 생기니 웃음이 많아졌고 이렇게 웃음이 많아진 저의 밝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죠. 뭐랄까 잠시 잊고 있던 명랑한 저의 본 모습을 찾게 해 준 곳이 바로 살구여성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밝은 모습을 찾으셨고, 봉사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을 거라 짐작됩니다.**

살구여성회 따뜻한 밥집에는 유명한 비법이 있어요. 조미료 대신 뼈에 좋은 여러 재료를 넣어 육수를 만들고 그것을 기본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음식을 만들죠. 그래서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면 보람을 느낍니다.

**유명한 비법이라고 말씀하시니 혹시 이사님이 특별히 잘 하시는 요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뜻한 밥집의 장금이입니다(웃음). 저는 손맛이 좋고 행동이 빠른 편이라 음식 만드는 데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 있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 다들 맛있게 드시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구여성회 활동가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는 모두가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길 바랍니다. 봉사라는 게 얼핏 남을 위한 일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혼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이런 경험을 오래도록 이어가며 살구여성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지식을 전하고 사랑으로 되돌려 받다

## 박명숙



박명숙 선생님은 살구여성회의 10년 차 베테랑 영어 선생님이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영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히려 “배우시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가르침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며 10년 봉사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선생님은
생에 아름다운 순간은 단연 오늘이라며
살구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 공부하는 오늘을 즐겨라!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살구여성회 활동을 시작했나요?**

2010년도 10월경,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영어 봉사활동을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찾아가는 어르신 공부방'에 참여했고, 이후 살구평생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영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어 수업은 총 3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2, 3단계는 중등 영어 수준입니다. 실제 수업도 중학교 영어 교과서로 진행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중등 영어라고 해도 학습량이 많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 숙제도 내는데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픈 날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짐처럼 느껴지면 의욕이 사라질까 봐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살구평생학교에 꾸준히 나오셔서 공부하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게 함께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 영어를 가르치며 아쉬운 점도 있나요?**

봉사자가 더 많아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과목을 늘릴 수도 있고 영어 수업도 좀 더 세분화해서 재미있는 체험 수업을 열면 수강생들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듣기만 해도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열의가 넘치는 선생님이지만, 처음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수업에 적응하도록 돕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담 후에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라고 해요. 첫 수업부터 뭔가 배워야겠다는 마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환경을 파악하시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사람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달만 와서 버티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오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계시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모습에 주눅이 들면 못 오시는 거지요.

**아이들 영어수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어르신들 가르칠 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영어 한 두 마디만 해도 참 부러워하세요. 어릴 때는 가르친 만큼 실력이 쑥쑥 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채우면 된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읽고 배우면 그만이지요.

## 복잡했던 마음에 꽃을 피운 계기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수강생들에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살구여성회 활동이 선생님의 삶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저는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많은 사랑과 배움의 기회를 주셨

거든요. 덕분에 지식을 쌓고 이렇게 살구여성회에서 활동도 할 수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당연했다면 지금은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살구여성회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게요.**

제게 살구여성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그만뒀을 때,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엄마 곁에만 있어야 하나?' '한참 일해야 할 시기인데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복잡했지요.

그런 가운데 살구여성회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마음속 불안이 잦아들었어요. 오히려 엄마를 돌보면서 직업의 끈을 놓지 않고 이웃에 봉사도 하는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거죠. 살구여성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불안하고 피폐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구여성회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살구여성회 역시 전환점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어려웠던 시절 살구여성회를 만나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저를 포함한 활동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운영하면 더욱 화사한 살구꽃이 필 거라 믿습니다.



# 참여후기

50+마을기록지원단 신선순

"우연과 선택" 나의 활동의 시작점에서 떠오르는 단어이다.

우연히 마을기록지원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선택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마을기록지원단 선택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억 속에만 남겨두면 없어지는 것들이 기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존되고 전파된다는 매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마을기록지원단 이었지만, 누군가의 말을 글로 나타내 책으로 엮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의미전달을 잘하고 좋은 글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진행했지만 말을 글로 나타냈을 때 너무 민낯이 드러나는 내용에 약간의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이 그래도 읽기 편한 글로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경험은 어렵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의 첫 시작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어색함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활동하며 공감대를 만들어 가던 시간 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들로 다가온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 만나고 이제 만나면 반갑고 좋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활동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참여후기

50+마을기록지원단 육연숙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다.
차단되거나 폐쇠하거나 평범한 일상이 비상이 되는 시기다.
그러나 나에게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한해였다.
기록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책 읽기, 토론하면서 나오는 반짝이는 생각들이 즐거웠다.
처음 만난 기록단 선생님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줄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행복하였다.
마을기록을 하며 알게 된 살구여성회의 활동가분들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척박한 이 도시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뜨겁게 살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내가 사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활동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도 없었다. 그런데도 기뻤단다. 좋았단다.
심지어 후원금을 내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면서도 즐거웠다고 한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마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녹취한 것을 기록으로 옮길 때 한 문장을 수십 번 듣기도 한다. 글을 정리하면서 또 몇 번을 본다. 그러면서 인터뷰 했던 분이 오랜 친구가 된듯한 기분이 든다.
지난 활동을 회상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때론 한숨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일도 했었어요"라고 자랑할 때는 얼굴에 빛이 난다.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한 사람과의 인터뷰 기록이 끝날 때마다 감동이다.
사람책' 한권 읽고난 것 같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50년은 나만을 위해 살았다. 앞으로의 50년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50플러스이기를 바란다.

# 참여후기

50+마을기록지원단 전선희

온갖 봄꽃들을 피워내는 부지런한 계절이 오면,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을 느낀다. 이럴즈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라며 서울시 50+마을기록지원단 모집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동안 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소통도 없이 지내오고 있었기에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신청하였다. 활동처인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배치되었고,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휴먼스오브금천의 콘텐츠로 이 기록사업을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금천구 지역에 공동체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살구여성회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으로 공유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교육과 인터뷰 실습의 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 인터뷰 실전에 참여하였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왔고, 특히 몇 개월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기에 누구나 사람 만나는 일을 꺼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4개월 동안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였던 활동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0여년을 사람들로 이어져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 디딤돌이 되어 온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과 수고의 결실이 현재 살구여성회의 실제 모습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구여성회와 같은 단체가 있음이 새삼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이제 그동안의 인터뷰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내기 전 정리하는 시간이다. 글은 말보다 안정감은 있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주는 생생함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처음 해보는 인터뷰라 여러 가지 어설픈 면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속 깊은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나눠주신 분들과 사업진행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분들,  함께 한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2020년 50+마을기록가 활동 또한 지역의 어디인가에 소중한 기록 자료로 남아 공유되고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

# 참여후기

50+마을기록지원단 정선화

둔필승총(鈍筆勝聰)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다. 무딘 붓끝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뜻으로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기억도 기록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다. 다산 정약용 기념관 비문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쉬지 말고 기록해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메모하고 기록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이번만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적이 없다. 살구여성회 20년 활동을 정리한 김주숙 교수님의 <살구꽃이 피었습니다>를 읽다가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이 생겨난 과정을 보게 된 것이다. 15년 넘게 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도 몰랐던 사실들을 교수님의 기록에서 발견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역사를 찾았다고 할까?
꼼꼼한 기록 속에는 활동내용뿐 아니라 '함박웃음' 회원들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과 기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17년 도서관 리모델링을 축하해주시며 선뜻 책상을 선물해주셨던 교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모르는 분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매번 무슨 질문을 해야 하나 쩔쩔매며 살구여성회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래도 책을 읽으며 살구여성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좋았고,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웠다. 인터뷰 녹취록을 풀고, 그걸 몇 번씩 읽고 정리하면서 감히 살구여성회 선생님들과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젊은 날 살구여성회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여전히 특별한 신념으로 살아가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었다. 살구여성회의 기록이 '함박웃음'을 담아낸 것처럼 이 책에 살구여성회에서 활동하신 여러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담고 싶기도 했다. 부족하지만 이 책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살구여성회가 앞으로도 지역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꾸준히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50+마을기록지원단과 함께한
인터뷰기록집 Vol.2

# 반보(半步)의 지혜 마을을 잇다

살구여성회 활동가 인터뷰